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인·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저 자

김은영, 구자연, 김지원, 김혜진, 김재철,
김종근, 조숙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재 철 (한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종 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위탁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우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립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6-4 93370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오늘날,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은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 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학계와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 설문조사, 아동검사, 문헌연구 등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유형과 빈도 등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교육적 성과와 부작용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남대학교 김재철 교수님, 국립공주대학교 김종근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동선 교수님과 연구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어머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에 헌신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II. 연구의 배경	43
1. 사교육의 정의	45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49
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54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61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63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80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88
4. 소결(시사점)	119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	123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125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145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163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185
5. 소결	205

V. 결론 및 시사점	209
1. 결론	211
2. 시사점	213
참고문헌	217
Abstract	225
부록	237
1. 설문지: 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237
2. 설문지: [유아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258
3. 부록 표	264



표 목차

〈표 I-3- 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9
〈표 I-3- 2〉 설문조사 문항 구성	21
〈표 I-3- 3〉 연구 대상 아동 특성	22
〈표 I-3- 4〉 부모 응답자 특성	22
〈표 I-3- 5〉 LSSC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23
〈표 I-3- 6〉 REVt 하위 검사 구성	25
〈표 I-3- 7〉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문항 구성	25
〈표 I-3- 8〉 단어목록회상 과제 문항	26
〈표 I-3- 9〉 문제해결력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28
〈표 I-3-10〉 문제해결력 검사 문제상황 목록	28
〈표 I-3-11〉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성격 특성 프로파일	29
〈표 I-3-12〉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설문문항 구성	29
〈표 I-3-1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30
〈표 I-3-1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31
〈표 I-3-15〉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특성 변인	32
〈표 II-1- 1〉 선행연구에서의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47
〈표 II-2- 1〉 시도별 조례에 따른 학원의 교습시간 차이	49
〈표 II-2- 2〉 사교육 관련 정책	53
〈표 III-1- 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24년	67
〈표 III-1- 2〉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유형별 가짓수): 2024년	69
〈표 III-1- 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 2024년	71
〈표 III-1- 4〉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24년	73
〈표 III-1- 5〉 (사교육 유경험자)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2024년	75
〈표 III-1- 6〉 월간 사교육 비용: 2024년	77
〈표 III-1- 7〉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24년	79
〈표 III-2- 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81
〈표 III-2- 2〉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시간제학원 개수	81
〈표 III-2- 3〉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	82
〈표 III-2- 4〉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83
〈표 III-2- 5〉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개수	84

〈표 III-2- 6〉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85
〈표 III-2- 7〉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16년 VS. 2024년	85
〈표 III-2- 8〉 월간 사교육 비용: 2016년 VS. 2024년	87
〈표 III-2- 9〉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16년 VS. 2024년	87
〈표 III-2-10〉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이용비용	88
〈표 III-3- 1〉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89
〈표 III-3- 2〉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90
〈표 III-3- 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16년 VS. 2024년	92
〈표 III-3- 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24년	93
〈표 III-3- 5〉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4
〈표 III-3- 6〉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5
〈표 III-3- 7〉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97
〈표 III-3- 8〉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7
〈표 III-3- 9〉 사교육을 지속할 의향: 2024년	99
〈표 III-3-10〉 지속할 의향이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2024년	100
〈표 III-3-11〉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16년 VS. 2024년	103
〈표 III-3-12〉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24년	104
〈표 III-3-13〉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16년 VS. 2024년	105
〈표 III-3-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24년	106
〈표 III-3-1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108
〈표 III-3-1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109
〈표 III-3-17〉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111
〈표 III-3-18〉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111
〈표 III-3-19〉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중요한 고려요소: 2024년	114
〈표 III-3-20〉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 2024년	117

〈표 IV-1- 1〉 자녀 행동 특성(1) (영역별 총점): 2024년	126
〈표 IV-1- 2〉 자녀 행동 특성(1) (총체적 어려움 세부영역별 점수): 2024년	128
〈표 IV-1- 3〉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여부 및 지속기간): 2024년	132
〈표 IV-1- 4〉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정도): 2024년	136
〈표 IV-1- 5〉 부모-자녀 상호작용(전체): 2024년	138
〈표 IV-1- 6〉 부모-자녀 상호작용(자녀 연령별): 2024년	139
〈표 IV-1- 7〉 부모-자녀 상호작용(가구소득별): 2024년	140
〈표 IV-1- 8〉 부모-자녀 상호작용(학습 사교육 개수별): 2024년	143
〈표 IV-1- 9〉 부모-자녀 상호작용(사교육 여부별): 2024년	144
〈표 IV-2- 1〉 LSSC 검사 결과	147
〈표 IV-2- 2〉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응답 결과	149
〈표 IV-2- 3〉 단어목록회상 과제 결과	151
〈표 IV-2- 4〉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151
〈표 IV-2- 5〉 정서·행동 특성 T점수	153
〈표 IV-3- 1〉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변수	163
〈표 IV-3- 2〉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164
〈표 IV-3- 3〉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 유형의 추이	164
〈표 IV-3- 4〉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추이	165
〈표 IV-3- 5〉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165
〈표 IV-3- 6〉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	165
〈표 IV-3- 7〉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166
〈표 IV-3- 8〉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166
〈표 IV-3- 9〉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167
〈표 IV-3-10〉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	168
〈표 IV-3-11〉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171
〈표 IV-3-1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172
〈표 IV-3-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174
〈표 IV-3-14〉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174
〈표 IV-3-15〉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175
〈표 IV-3-16〉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177
〈표 IV-3-17〉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178

〈표 IV-3-18〉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180
〈표 IV-3-19〉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1
〈표 IV-3-20〉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182
〈표 IV-3-21〉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2
〈표 IV-3-22〉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184
〈표 IV-3-23〉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4
〈표 IV-3-2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185
〈표 IV-4- 1〉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	185
〈표 IV-4- 2〉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188
〈표 IV-4- 3〉 유아 1만명당 학원수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193
〈표 IV-4- 4〉 시도별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194
〈표 IV-4- 5〉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	198
〈표 IV-4- 6〉 유아 1만명당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199
〈표 IV-4- 7〉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	201
〈표 IV-4- 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202
〈표 IV-4- 9〉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204



그림 목차

[그림 I-3- 1] 단어목록화상 과제 예시	27
[그림 IV-2- 1] LSSC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	146
[그림 IV-2- 2] LSSC 영역별 점수	148
[그림 IV-2- 3]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점수	148
[그림 IV-2- 4] 비언어성 지능 점수	150
[그림 IV-2- 5]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실시 유형 조사	154
[그림 IV-2- 6] 현재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인식 조사	156
[그림 IV-2- 7] 영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방법	157
[그림 IV-2- 8] 영어 사교육 시작 시기 및 현재 주당 실시 횟수	157
[그림 IV-2- 9]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타인이해 간 관계	162
[그림 IV-2-10] 과거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집중력 부진 간 관계	162
[그림 IV-2-11] 과거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관계	162
[그림 IV-3- 1]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 예시	170
[그림 IV-3- 2]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궤적 평균	178
[그림 IV-3- 3]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 평균	180
[그림 IV-4- 1] 유아 대상 학원의 분포 (좌: 유아 사교육기관, 우: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189
[그림 IV-4- 2] 시군구별 유아 사교육기관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190
[그림 IV-4- 3]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191
[그림 IV-4- 4]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 (좌: 유아 1만명당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192
[그림 IV-4- 5]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 (좌: 센터의 위치, 우: 시군구별 분포)	196
[그림 IV-4- 6]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Hot and Cold Spots	197

[그림 IV-4- 7]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좌: 유아 1만명당 수, 우: Hot and Cold Spots)	200
[그림 IV-4- 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203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구성 지표별 질문	264
〈부록 표 2〉 문제해결력 검사 평가 영역 및 질문	264
〈부록 표 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266
〈부록 표 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267
〈부록 표 5〉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1)	268
〈부록 표 6〉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2)	270
〈부록 표 7〉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 (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1)	272
〈부록 표 8〉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 (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2)	274
〈부록 표 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16년 VS. 2024년	276
〈부록 표 1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24년	276
〈부록 표 11〉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277
〈부록 표 12〉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278
〈부록 표 13〉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279
〈부록 표 14〉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16년 VS. 2024년	280
〈부록 표 15〉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24년	281
〈부록 표 16〉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16년 VS. 2024년	282
〈부록 표 17〉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24년	282
〈부록 표 18〉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 2024년	284
〈부록 표 1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285
〈부록 표 2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24년	28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일찍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사교육 비용은 예비부모들에게 자녀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정부 또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일부 부모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의 사교육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기존자료 심층분석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사교육 정의 관련 선행연구 분석, 법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사교육 관련 제도·지침 정리, 영유아기 교육 관련 시도별 조례 조사
- 선행연구 내 사교육 실태나 영유아기 사교육 영향 관련 내용 정리
-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 실태, 부모들의 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조사·분석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영유아의 행동 특성,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관계성 분석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검사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 분석
- 패널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분석
-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와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나 치료센터의 지역분포 분석, 상관성 분석

- 영유아 교육정책 입안 관련 시사점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만2, 3,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 대상 응답 결과 분석
- 아동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과 부모 72명
- 패널자료 심층분석: 한국아동패널의 사교육 경험 변인(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부모 변인(7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8차년도~14차년도) 활용 분석
-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지역분포 조사 등
- 정책토론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II. 연구의 배경

1. 사교육의 정의

-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아직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정의할 때 일반적 개념과는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프로그램 외 특별활동 포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짓고 있음을 확인함.
-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함.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 사교육 관련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자치법규로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등이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둠. 해당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를 뜻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는 학원의 교습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현재 17개 시도전체 지역 상황에 따른 조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교습시간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모든 조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 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학습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않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유아교육법에선 방과후 과정에 대한 규정과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음.

-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2023) 발표하였고, 주요 추진과제 6가지 중 유아 사교육 대응도 포함됨.
- 이 중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단기적으로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중장기적으로 유보 통합 연계, 3~5세 교육과정 개정,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등이 있음.
 - 교육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847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함.

3. 선행연구

-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사교육 시작연령, 유형, 비용,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2008년~2013년 조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이용,

기관 내 특별활동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증가하였음(이정립 외, 2015).

- 김은영과 김근진, 윤지연(2017)의 사교육 국제비교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교육 유형으로 체육, 미술, 한글 순으로 분석되었고,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였음.
- 서문희, 양미선(2013)의 연구에서 3~5세 유아 중 약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졌음. 가구소득, 자녀출생순위, 아동의 연령 등이 사교육 참여율이나 지출규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안재진, 2011; 송정 외, 2011; 이경선·김주후, 2010)에서도 유사하였음.

- 영유아 시기 사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일부 인지 및 언어 발달 등에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Ren et al, 2020), 사회정서 발달에는 부정적인 결과(권정윤, 2007; 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김성숙, 2013)도 함께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의 종류와 동시 참여 개수 등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Shi et al, 2022)도 있었고, 사교육 실시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1;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 2013; 윤소정·김진옥, 2016)도 있었음.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 조사대상의 65.33%가 사교육 이용 중이며,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 경우 30.10%로 나타남.
-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 평일에는 거의 매일 이용하며,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음. 배경에 따라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

육을 더 많이 받았음.

-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음.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음. 사교육 유형별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음.
- 사교육 시작 연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장 빨랐음. 영유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은 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의 경우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음.
- 전체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19만 8천원,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음.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 표준편차 921.25로 개별 가정 간 차이가 매우 커짐.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가짓수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사교육 시작 연령 또한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의 사교육 비용과 반일제학원 비용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였음.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사교육에 대해 부모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음. 2024년 조사 응답자의 79%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음.

- 사교육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음. 한편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해주길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이 해당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함.
-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로는 유치원 재원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남. 어린이집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을 더 선호했으며,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를 가장 선호함. 소득과 상관없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가장 선호했는데,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사교육 축소,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줄어듦.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보다 질이 낮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치원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동등하게 중시했음.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음.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음.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미치는 영향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음. 세부적으로는 사교육 여부, 사교육 개수에 따라 영유아기 행동 특성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사교육을 받거나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영유아의 부모가 집안일 함께 하기, 스포츠나 운동하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임.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관계를 살펴봄. 사교육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과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고,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를 프로그램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살펴보았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과 현재 아동의 언어 발달,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의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거에 실시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많은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남. 즉,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

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프로그램의 경험도 집중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전에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

-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아동의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추이, 사교육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순위 등 다양한 아동 및 부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음. 또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는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외의 다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제약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속변수인 아동 특성 변수는 시점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나 아동 중 응답자가 달라지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 8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는 어머니가 응답했으나, 13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측정 도구의 변화는 변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결과 해석 시 신중을 요함.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함.
-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761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66% 이상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포함. 시군구 별로는 평균 한 시군구에 34개소가 분포, 서울 강남구는 277개로 전국에서 사교육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그 외에도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지방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하였음.
-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총 956개소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하여 사교육기관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하나의 시군구에 평균 3.8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구는 전국 대비 6.5배 이상 많이 분포하였음.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함.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석 결과, 시군구별로 평균 3.2개소 분포함.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또는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인데, 밀도가 높은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전국 6,637곳이 운영 중이었고,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14여 개소임.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함.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는데,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약 4배 집중 분포함.
-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평균은 23.5개소인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임.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평균 57.8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음.
-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나아가 LISA 지수 및 LISA 맵을 작성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패턴을 검토한 결과, 약 11.2%의 시군구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어 외국어 학원의 밀도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밀도 분포는 일부 시군구별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하지만,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영유아의 특성상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
 - 영유아 사교육 참여와 유형, 개수, 비용 등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목적은 영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흥미, 유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우선시 함.
 - 부모의 인식과 실제는 차이가 있음.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일제학원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체능 못지않게 한글과 영어 등 학습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요령을 잘 터득, 대인

관계에서의 자존감, 인지 및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등의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남. 아동패널 심층분석 결과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는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이 보고됨.
-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 유형과 관련이 있었음.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예체능 사교육은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반면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았고,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 지속성과 관련이 있었음.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사교육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유아의 행복감은 감소하였음. 한편 사교육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2. 시사점

-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I

서 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부터 교육이 계급 이동을 위한 사다리의 역할을 했던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일찍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이나 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 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입시제도는 비단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들은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배움을 주고자 하며, 남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에 주변의 선택을 무작정 따라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월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등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경제적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 이는 예비 부모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되어 저출생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수년 간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애 초기부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올 6월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과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교육부, 2024c)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의 시급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4c: 1, 4). 이러한 정책 모두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애 초기 인생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영유아기에 바람직한 경험과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특정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고, 배움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다한 조기 사교육에의 노출은 여러 영역에서 발달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선행하여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서유현, 2010).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자기 주도성의 발달 지연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의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최항석, 2014).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김언경, 2018).

정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있고, 부모 또한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교육과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많은 부모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통해 자녀를 더 잘 교육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감안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유아 사교육 대응으로 이음학기 운 영과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 확대를 언급한 바 있으며(교육부, 2023: 16),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5세에 놀이중심 언어교육 등 문해력·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이음학기’를 운영하여 유아-초등 교육 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교육부, 2024c: 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의 사교육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 관련 연구가 설문조사나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기존자료 심층분석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영유아들이 그 시

기에 적합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고, 법자료와 정책자료를 통해 사교육 관련 제도나 지침을 정리한다. 또한 시도별로 적용되는 조례를 살펴보고, 영유아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추출한다.

둘째, 사교육 실태나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 관련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영유아기 사교육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8년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패널자료 재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의 사교육 실태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함께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직접 검사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이나 학습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여섯째, 패널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중장기적으로 발달이나 학습,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일곱째,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와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나 치료센터의 지역 분포를 분석해보고 상관성을 살펴본다.

여덟째, 다양한 연구방법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사교육 관련법,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인식,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과 영유아기 적절한 교육 경험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육실태조사 재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추이를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인식, 사교육 경험과 영유아 행동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설문조사는 만2, 3,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을 만2세와 5세로 설정한 것은 2016년 사교육 연구(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와 일부 동일문항으로 조사하여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 현황을 시계열로 비교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조사에서는 유치원 입학 최저연령인 만3세를 추가하여 영유아의 연령별 사교육 및 특별활동 현황을 함께 보고자 하였다.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하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각 재원기관별 할당 고려 시 상대적으로 사례 확보가 어려운 가정양육,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는 가정양육을 하는 만2세 영아 자녀의 어머니 최소 30명,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자녀의 어머니 각 연령별 최소 30명을 최소 분석단위로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2세 영아의 경우, 위에서 최소 분석단위 확보를 위해 할당한 가정양육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은 모두 어린이집 재원 사례에 할당하고, 3세와 5세 유아의 경우는 가정양육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사례를 1:1 비율로 할당하여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는 주로 30-40대였는데, 이 중 30대가 63.73%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33.87%였다. 응답 당사자인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과반 이상인 57.80%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뒤로 전문대 졸업이 21.6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53%,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우자, 즉 응답가구 아버지의 최종학력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4.33%, 전문대 졸업이 19.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49%, 대학원 졸업 이상 10.62% 순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5.40%가 맞벌이고, 외벌이는 34.27%였다. 가구의 한 달 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36.53%고,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33.93%였다. 700만원 이상인 가구도 21.13%로 그 뒤를 따랐다. 응답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 38.40%, 읍면지역 16.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가구의 자녀 연령은 비례할당하여 표집한 대로 만2세와 만3세, 만5세가 동일하게 33.33%였고, 전체의 51.33%가 남아고 나머지 48.67%가 여아였다. 본 조사의 주요 배경변인인 자녀의 재원기관도 앞서 목표한 대로 표집하여,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60.67%, 유치원 33.80%,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반일 제학원 3.53%. 마지막으로 어떤 기관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3-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500
연령		
20대	2.13	(32)
30대	63.73	(956)
40대	33.87	(508)
50대	0.27	(4)
60대 이상	0.00	(0)

구분	비율	(수)
본인(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53	(158)
전문대졸	21.67	(325)
4년제대졸	57.80	(867)
대학원졸 이상	10.00	(150)
배우자(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49	(229)
전문대졸	19.55	(289)
4년제대졸	54.33	(803)
대학원졸 이상	10.62	(157)
취업상태		
맞벌이	65.40	(981)
외벌이	34.27	(514)
미취업	0.33	(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40	(126)
300 이상~500만원	36.53	(548)
500 이상~700만원	33.93	(509)
700만원 이상	21.13	(317)
지역 규모		
대도시	38.40	(576)
중소도시	45.60	(684)
읍면	16.00	(240)
자녀 성별		
남아	51.33	(770)
여아	48.67	(730)
자녀 연령		
만2세	33.33	(500)
만3세	33.33	(500)
만5세	33.33	(50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3.80	(507)
어린이집	60.67	(910)
반일제학원	3.53	(53)
가정양육	2.00	(30)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 연구 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배경 질문,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영유아의 하루 일과, 영유아의 행동 특성,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이다.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3-2〉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조사 내용
배경 질문	거주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자녀 유무, 응답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주당 근로시간,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막내자녀의 출생연월, 성별, 재원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참여 여부, 참여 종류, 참여 가짓수,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참여 이유, 충분성과 이유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생 부모만) 학원 선택 이유, 비용, 만족도 사교육 여부,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및 유형, 학습 사교육 시키는 이유, 예체능 사교육 시키는 이유, 사교육 만족도, 비용, 사교육 횟수와 회당 시간, 지속 의향 여부 및 유형
영유아의 하루 일과	평일과 토요일의 유형별 일과 참여 시간
영유아의 행동 특성	강약점 질문지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사교육 정책의 방향

다. 아동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사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동 대상 인지·언어검사와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대상 검사는 아동의 언어능력, 화용 능력 중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과제를 실시하여 아동의 뇌 발달, 언어능력, 사회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사교육 현황 및 인식과 더불어 사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 발달력, 언어 환경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검사 대상

가) 아동 특성

대상자는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과 부모 72명이다. 아동 대상자의 성별은 남아가 36명(50.0%), 여아가 36명(50.0%)이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85.8개월(표준편차 5.0)이었다. 모든 아동은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 검사2(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문수백, 2020) 결과 동작성 지능지수가 85(-1 SD) 이상인 아동들로 선정하였으며, 부모 보고에 의해 시각 및 청각 등의 동반 장애가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3-3〉 연구 대상 아동 특성

단위: 개월, 세

구분	남 (n=36)		여 (n=36)		전체 (n=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령	86.0	5.9	85.5	4.0	85.8	5.0
연령	7.1	0.4	7.1	0.3	7.1	0.4
비언어성 지능	119.7	23.9	118.7	17.3	119.2	20.8

나) 부모 응답자 특성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대졸 66.6%, 석사 18.0%, 박사 6.9%, 고졸 5.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졸 69.4%, 석사 20.8%, 박사 5.5%, 고졸 1.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36명(50%), 외벌이 가정 36명(50.0%)이었고,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4시간이고, 어머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3시간,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은 689.4만원(표준편차 21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600~800만원 미만이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0~600만원 미만이 21.4%, 800만원~1000만원 미만이 21.4%, 200만 원 미만은 8.9%로 나타났다. 영어권 나라에 다녀온 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 ‘없음’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미만’이 29.6%, ‘2년 이상’이 9.9%, ‘6개월~1년 미만’이 5.6%, ‘1년~2년’이 2.8%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는 가정 내에서 아동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3-4〉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항목	내용	비율	(수)
성별	여성	100.0	72
	남성	0.0	0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5.5	4
	대졸	66.6	48
	석사	18.0	13
	박사	6.9	5
	무응답	2.7	2
	고졸 이하	1.3	1
모 교육수준	대졸	69.4	50
	석사	20.8	15
	박사	5.5	4
	무응답	2.7	2
	맞벌이 여부	50.0	36
	외벌이	50.0	36

2) 검사도구

가) 언어능력

(1) 전반적 언어능력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이윤경·허현숙·장승민, 2015)를 실시하였다.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는 만7~12세 학령기 아동을 평가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이며, 총 11개의 하위검사(상위개념 이해 및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어 표현, 구문 이해, 비유문장 이해, 문법 오류 판단 및 수정, 복문 산출, 단락 듣기 이해, 문장 따라 말하기)를 통하여 의미, 문법, 화용-담화, 청각적 기억과 같은 전반적인 언어 영역을 수용과 표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한다.

LSSC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용 또는 표현 언어능력에 대한 정상 및 지연 발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연령 집단별 규준을 통하여 백분위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 경우 정상 발달 범주 내에 있는 또래 대비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표 I-3-5〉 LSSC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하위검사		문항	검사 내용
상위개념 이해 및 상위어 표현	상위개념 이해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상위개념 이해와 상위어 표현을 통해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 도구: 그림자료집(1~12번), 검사기록지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 중단: 이해 검사를 기준으로 6문항 연속해서 틀리면 중단
	상위어 표현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반대되는 낱말, 비슷한 낱말 표현 능력을 통해 어휘표현 능력을 평가 도구: 검사기록지, 필기도구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 중단: 연속해서 8문항 틀리면 검사 중단
반의어 표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반대되는 낱말, 비슷한 낱말 표현 능력을 통해 어휘표현 능력을 평가 도구: 검사기록지, 필기도구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 중단: 연속해서 8문항 틀리면 검사 중단
동의어 표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반대되는 낱말, 비슷한 낱말 표현 능력을 통해 어휘표현 능력을 평가 도구: 검사기록지, 필기도구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 중단: 연속해서 8문항 틀리면 검사 중단
구문 이해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구문복잡도에 따른 문장 이해 능력을 평가 도구: 그림자료집, 검사기록지 시작: 1~2학년은 1번 문항, 3학년 이상은 9번 문항부터 시작 * 기초선: 3학년 이상의 경우 5문항 연속 정반응을 기초선으로 하며 시작점에서 기초선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연속 5문항 정반응이 나올 때까지 역순으로 진행 중단: 모든 학년 아동에게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

하위검사	문항	검사 내용
비유문장 이해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관용구나 속담과 같이 비유가 포함된 문장의 이해능력을 평가 • 도구: 그림자료집, 검사기록지 •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시작 • 중단: 모든 학년 아동에게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
문법 오류 판단·수정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문법오류 판단 및 수정 과제를 통해 문법 형태소 사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평가 • 도구: 검사기록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시작 • 중단: 정문(틀린 곳이 없는 문형)을 포함하지 않고 판단 과제에서 연속 6문항을 오반응 하는 경우 검사 중단
복문 산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4개의 짧은 문장을 듣고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도록 하여 복문 산출 능력을 평가 • 도구: 녹음기, 검사기록지 • 시작: 1~3학년은 1번부터, 4~6학년은 8번 문항부터 시작 * 기초선: 4~6학년의 경우 연속 3문항 정반응을 기초선으로 함. 시작 문항에서 연속 3문항 정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3문항 연속해서 정반응을 보일 때까지 역순으로 진행 • 중단: 연속해서 6문항 오반응을 보이는 경우 검사 중단
단락 듣기 이해	저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이야기글 또는 설명글 형식의 단락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 도구: 녹음기, 단락글이 녹음된 MP3파일, 그림자료집 * 그림자료집 – 단락듣기 단락1의 4번, 단락4의 5번, 단락7의 5번 문항에서 사용
	고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1~3학년은 단락1~단락6까지 실시 4~6학년은 단락4~단락9까지 실시 • 중단: 각 학년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

(2) 어휘력

아동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만2세 6개월부터 만16세 이상 성인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수용어휘력 검사와 표현어휘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5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 수용어휘력 검사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 형용사 및 부사 19개(10%)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어휘력 검사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3%)로 구성되어 있다.

〈표 I-3-6〉 REVLT 하위 검사 구성

어휘 영역	문항 수	품사별 문항 수(비율)
수용어휘	185개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0%) 형용사 및 부사 19개(10.0%)
표현어휘	185개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3%)

(3) 아동의 언어능력 및 언어 환경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KBPR 한지윤·임동선, 2018)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능력과 언어 환경적 현주소를 분석하였다.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한지윤·임동선, 2018)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발달력, 현재 언어능력,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총 17개 문항(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1 참조)이 있으며 초기 이정표, 현재 언어능력,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가족력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KBPR의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의 문항을 모두 더해 산출하며, 총점은 각 영역의 총점들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I-3-7〉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문항 구성

구성 지표	내용	문항 수	총점
초기 이정표	걸음마 시기, 첫 낱말 시기, 2어 조합 시기	4	18
현재 언어능력	아동의 표현 능력, 조음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장 구성 능력	5	15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책 읽기 선호도, 문해 능력, 선호하는 활동	6	18
가족력	가족 구성원의 교육 수준, 가족 및 친척의 학습과 언어에 대한 어려움 여부	2	9

나) 인지 능력

(1) 비언어성 지능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2: KBIT2)(문수백, 2020)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KBIT2는 만4~90세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지능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 검사 중 관계유추 검사를 사용하였다. 관계유추 하위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비언어성 IQ(nonverbal IQ)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자극 간의 관계를 지각하고 전체 자극들을 하나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비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는 유동성 추리능력(fluid reasoning)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집행기능

집행기능 하위요소 중 작업기억의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단어목록 회상 과제(천소연·임동선, 2017)를 실시하여 아동의 전전두엽 기능을 측정하였다. 일화적 완충기는 장기기억과 작업기억 사이, 또한 시공간 작업 망과 음운적 루프 사이에서 다차원적 정보를 통합된 일화(episode) 또는 덩이(chunk)로 만들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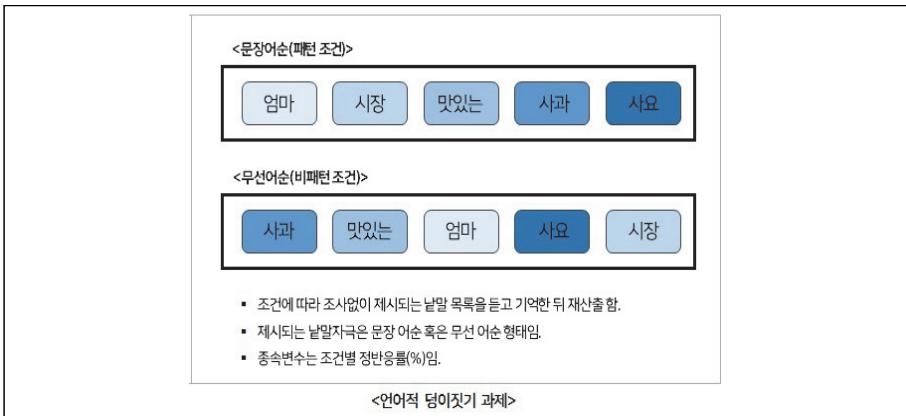
검사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3어절 단문, 5어절 단문, 5어절 접속복문, 7어절 접속복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문장 순 배열이 13문항, 무선 순 배열이 13문항이다. 문장 순 배열은 실제 문장과 동일하며 낱말목록을 조사 없이 실제 문장의 어순으로 배열하여 제시하는 것이고, 무선 순 배열은 문장 순서에서 사용되는 낱말과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되 문장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를 섞어 재배열한 것이다. 단어 목록 회상 과제는 각 배열 조건과 기억폭 별로 전체 어절 수 중 정반응한 어절의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표 I-3-8〉 단어목록회상 과제 문항

어절	번호	문장 순 배열	무선 순 배열
3어절	1	예쁜 그림 그려요	그려요 그림 예쁜
	2	친구 신나게 놀아요	놀아요 신나게 친구
	3	엄마 치마 입어요	입어요 치마 엄마
	4	아빠 동생 봐요	봐요 동생 아빠
5어절	1	동생 작은 가위 종이 잘라요	잘라요 가위 작은 종이 동생
	2	엄마 시장 사과 조금 사요	사요 시장 조금 사과 엄마
	3	친구 배고파서 밥 빨리 먹어요	먹어요 배고파서 빨리 밥 친구
	4	아빠 바지 입고 양말 신어요	신어요 입고 양말 바지 아빠
	5	아빠 친구 작은 공 던져요	던져요 공 아빠 친구 작은

어절	번호	문장 순 배열	무선 순 배열
	6	동생 추우면 엄마 이불 줘요	줘요 추우면 엄마 이불 동생
7어절	1	친구 우유 많이 먹고 맛있는 사탕 받아요	받아요 우유 사탕 맛있는 먹고 많이 친구
	2	동생 많이 배고프면 엄마 맛있는 빵 만들어요	만들어요 엄마 배고프면 빵 맛있는 많이 동생
	3	아빠 배 많이 아파서 빨리 병원 가요	가요 아파서 배 빨리 많이 병원 아빠

[그림 I-3-1] 단어목록회상 과제 예시



다) 사회정서

(1) 문제해결력

아동의 상황/단서 추론, 원인/이유 추론, 감정 추론, 문제해결 추론, 예방책 제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력 검사(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2023)를 실시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는 사회 상황에 근거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림을 보고 제시된 그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상황의 원인을 소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답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의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의 사회적 문제상황을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문제상황 및 질문은 부록 표 2 참조). 조사자가 각 상황마다 상황/단서 추론, 원인/이유 추론, 감정 추론, 문제해결 추론, 예방책, 기타(상황판단)의 6개의 질문을 던지면 아동은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표 I-3-9〉 문제해결력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상황	측정내용
사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주의 또는 미흡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 • 그림을 보고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또 그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시능력
문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 또는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 • 그림에 나타난 단서들을 통해 문제상황을 예측 및 유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시능력
일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 그림을 보면서 경험을 회상하여 말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하고 등장 인물들의 감정을 유추능력

〈표 I-3-10〉 문제해결력 검사 문제상황 목록

상황	측정내용
사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유리창을 깬 상황,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공에 머리를 맞은 상황
문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트에서 아이가 땅을 쓰며 울고 있는 상황,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친구가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황, 부엌에서 아빠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식탁 위에 올라와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
일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기 시합에서 1, 2, 3등을 한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 바닷가에서 가족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데 남동생이 모래성 위에 모래를 쏟고 있는 상황,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불을 끄러 온 상황

(2) 정서·행동 특성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II)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18)를 사용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집중력 부진, 불안·우울, 학습·사회성부진, 과민·반항성 등에 대한 정서·행동 특성과 내적(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외적(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위험문항(학교폭력피해), 외부요인(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조금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4개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총 6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격 특성 부분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군 선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은 외적/내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격 특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지원을 평가함으로써 부모는 학생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서·행동 특성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최근 해당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행동 특성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다. 관심군은 정서·행동문제 총 점이 초1 남학생 기준 20점, 여학생 기준 17점 이상이며 이 점수는 평균에서 1.5SD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3-11〉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성격 특성 프로파일

구분	핵심 성격 특성	의미
개인 내적 성격 특성	성실성	맡은 바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태도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개방성	일이나 사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개인 외적 성격 특성	타인 이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각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사회적 주도성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 경험 여부를 파악
외부요인	부모 자녀 관계	자녀양육 중 곤란한 상황이 많았는지를 확인
정서·행동 문제요인	집중력 부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불안/우울	분리불안장애 등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충격, 별다른 원인 없이 나타나는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등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학습/사회성 부진	언어 발달의 지연 및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의 부진, 학습장애, 지적장애, 강박성향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 또는 사회성 부진을 파악
	과민/반항성	짜증스러운 기분과 반항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에서 흔한 정서·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표 I-3-12〉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설문문항 구성

단위: 개

구분	문항 수
성격 특성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 의식

구분		문항 수
위험문항		2
외부요인		4
요인	정서행동 특성	집중력 부진
		불안/우울
		학습/사회성 부진
		과민/반항성
		기타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7

라)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관련 설문문항은 크게 자녀의 하루 일과,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정서 행동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하루 일과와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8)(하형석·정은진·최승주·구본호, 2017)의 보호자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김보용(2009: 98-107)의 연구와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를 조사한 정복주(2010: 134-144)의 연구,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한 최재원(2021: 67-71)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교육 인식 및 현황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녀의 하루 일과는 하루의 시간을 10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평일(주중)과 주말에 각각의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적도록 하였다.

사교육 현황 및 인식은 사교육 목적, 사교육비 부담 정도, 사교육 결정 주체, 사교육 과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9개의 문항(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3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3-1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구성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목적, 사교육비 부담 정도, 사교육 결정 주체, 사교육 과목	9개

자료: 김보용(2009).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pp. 98-107 내용과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pp. 134-144 내용 및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pp. 67-71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함.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문항은 백지원(2009: 50-55)의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와 신나나(2021: 61-68)의 유아 영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어 사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실시 경험, 실시 연령, 지도 방법, 실시 이유, 실시 횟수, 시행 기간, 비용,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총 7개의 문항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4 참조).

〈표 I-3-1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구성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실시 경험, 실시 연령, 지도 방법, 실시 이유, 실시 횟수, 시행 기간, 비용, 긍정적/부정적 효과	7개

자료: 백지원(2009).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pp. 50-55 내용과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pp. 61-68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과 서울, 경기 육아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배포하여 부모님께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 간 1:1 대면 검사로 실시되었고 조용한 환경에서 노트북, 녹음기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학교 방문 검사의 경우 아동의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내 부모님께서 응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검사에 참여하는 동안 응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패널자료 심층분석

패널자료 심층분석은 부모 변인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영유아 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 중 본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교육 경험 변인, 부모 변인, 아동 변인은 〈표 I-3-15〉와 같다.

〈표 I-3-15〉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특성 변인

사교육 경험 변인 (w5, w6, w7)	부모 변인(w7)	아동 특성 변인
사교육 경험 유무	아동 출생순위	지능지수(w9)
사교육 경험 유형	거주지역 규모	학업수행능력(w8-1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w11-14)
월평균 사교육 비용	부모학력	자아존중감 (w8-11, 13-14)
	부모 취·학업 유무	집행기능곤란(w8-11, 13)
	부모 우울	
	부부 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주: w는 wave의 약자로써 반복측정을 의미함.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3년 동안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 자료 중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 사교육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한 설문문항이 활용되었다. 사교육 경험 유형은 총 13가지로 구분되며,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는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이 포함되고, ‘학습 관련 사교육’에는 과학,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국어(한글, 동화구연, 응변 등),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교구 이용 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 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험을 예체능 관련 사교육 유형과 학습 관련 사교육 유형으로 구분하여,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별로 ‘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0)’,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만 참여한 집단(1)’, ‘학습 관련 사교육에만 참여한 집단(2)’, ‘예체능 및 학습 관련 사교육에 모두 참여한 집단(3)’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 변수 및 아동 변수와의 관련성 분석에는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7차년도 자료에서 생성한 사교육 경험 유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학습 관련 사교육의 참여 개수에 따라서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별로 ‘학습 관련 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0)’, ‘학습 관련 사교육에 1~2개 참여한 집단(1)’, ‘학습 관련 사교

육에 3개 이상 참여한 집단(2)'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 변수 및 아동 변수 와의 관련성 분석에는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7차년도 자료에서 생성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변수를 활용하였다.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부모 변인의 효과

부모 변인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인으로 활용된 부모 변인으로는 7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출생순위, 패널 거주지역 규모, 가구소득, 부모학력, 모 취·학업 유무, 부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등이다.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0개, 1~2개, 3개 이상), 월평균 사교육 비용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교육 경험 유무'를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교육 경험 유형'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을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사교육 경험 관련 변인으로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유형, 학습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아동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등을 활용하였다. 다만, 아동 변수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교육 경험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Angrist, J. D. & Pischke, J-S. 2017; 손호성·이재훈, 2018; Card & Krueger, 1994). 이중차분법을 활용, 1차 시점에

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변화율(rates of change)에 대한 사교육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분석하였다(Muthen, & Muthen, 2017).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등 종속변인의 전체 분산 중 개인 능력, 부모 변인이 설명하는 분산을 제거한 후, 사교육 경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마.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가)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전국의 135,753개의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로 주소, 학원명, 정원합계, 교습과정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4시간) 이상 운영하는 영어 학원의 교습 과목 및 정원 신고 정원 목록을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956곳(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학원에서 교습하는 2,470개의 과목에 대해 신고한 정원 자료이다. 이 때, 정원 자료는 신고에 의존하는 자료이다 보니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출 또는 검증되지 않아 분석에 사용될 만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¹⁾

행정구역별 유아 인구를 산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누리집에서(<https://jumin.mois.go.kr>)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기관별 연령별 인구자료를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는 행정구역 단위로 수

1) 예를 들어 춘천시와 서울 노원구 학원의 총 정원은 약 600만명 및 262만명에 달한다. 또한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 정원의 경우 울산 북구는 약 2.3만명에 달하는데, 해당 지역의 유아 인구가 1.2만명이다.

집 및 작성되는데 행정구역은 특성상 수시로 변동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분류 코드 또는 행정기관 코드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수집한 인구자료와 공간자료(행정 경계 shapefile과 기관 코드 등의 속성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시점의 행정 단위별 유아 인구를 산출하였다.

나) 분석방법

(1) 자료의 전처리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자료는 학원의 수강생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습과정 목록 또는 교습과정명에 ‘유아’를 포함하는 학원을 검색하면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와 같이 대상이 유아에만 국한되지 않거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추출되나 각 학원의 교습 대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실용외국어’를 교습하는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습과정 목록 필드는 다수의 교습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이외에도 ‘논술’, ‘수학’, ‘영어’, ‘스피치’, ‘글쓰기’, ‘주산’, 또는 ‘어학’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아’를 키워드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원을 모두 추출하였다[예: 유아 and (논술 or 수학 or 영어)]. 또한, ‘미술’, ‘예능’, ‘음악’, ‘무용’, ‘피아노’를 키워드로 하면서 ‘유아’를 키워드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원도 모두 추출하였다[예: 유아 and (미술 or 예능 or 음악 or 무용 or 피아노)].

전자를 ‘학습 사교육기관’, 후자를 ‘예체능 사교육기관’으로 구분하였는데, 학습 사교육기관은 총 8,761곳, 유아 대상 예체능 사교육기관은 239곳이 추출되었다. 예체능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의 수는 37,200곳에 달하지만, 이 학원 목록에서 ‘유아’를 키워드로 사용하면 239곳으로 한정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이윤진과 문무경, 김문정, 양시내(2009)의 연구도 유아 대상 학원의 추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유아 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 국제화 학원 및 전체 예능 학원수(2008년 기준 국제화 학원 7,408개소, 예능학원 23,578개소)를 제시한 바 있다.

(2) 사교육기관 주소의 좌표변환

이상의 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주소의 좌표변환을 실시하였다. 지오코딩

(geocoding)은 주소 정보를 위도와 경도 또는 특정 투영 좌표계의 직각평면 좌표 값으로 변환시키는 공간분석 기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구역도나 도로망도와 같은 다른 공간자료와 중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주소의 좌표변환은 중요하다. 사교육기관의 주소 정보는 WGS84 타원체의 경위도 좌표계 중 하나인 EPSG:4326 좌표계의 좌표로 변환하였다. 이 좌표계는 GPS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좌표계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새주소지도에서 사용하는 직각평면 좌표계인 EPSG:5179로 변환하였다.

(3) Hot Spot / Cold Spot 분석

수집 및 전처리한 유아 사교육기관 및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위치점을 시군구 단위로 합역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사교육기관 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비율,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소의 비율을 산출하고²⁾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후 각각의 비율에 대해 Getis-Ord Gi* (Getis and Ord, 1992) 통계치를 계산하여 Hot Spot 또는 Cold Spot을 탐지하였다. Hot spo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의 군집을 이룬 경우를 말하고, cold spo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이 군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밀도분포도이다. 이를 통해 단위 공간 상 수요의 강도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수요의 분포를 공간 관계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통계 기법으로는 공간 군집분석(Spatial Cluster Analysis)이 대표적이다. 공간 군집 탐지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전역적, 국지적, 초점 모델)이 널리 사용된다(Mitchell, 2005; Cromley and McLafferty, 2012). 특히 국지적 방법은 집계된 공간단위가 지도 위의 점과 점을 이어 만든 다각형인 폴리곤(polygon)인 경우 많이 사용하는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 statistics)를 시각화하는 LISA 맵(Anselin, 1995)과 국지 G 통계치(Getis-Ord Gi*)가 대표적이다.

2) 교습소 정원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소 비율(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수/유아 인구)을 활용함

G_i^*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지적으로 높은 값이 군집을 이루는 곳(hot spot)과 낮은 값 군집(cold spot)을 탐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특정 지역을 m 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누었다고 가정하고, X_i 를 i 지역의 특성(서비스 수요, 공급 인프라 규모, 인프라의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변수로 상정하며, W_{ij} 를 지역 i 와 j 사이의 접근성을 대표하는 공간가중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표준화된 G_i^* 통계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G_i^*(d) = \frac{\sum_{j=1}^n W_{ij}(d)x_j - W_i^* \bar{x}}{s[(nS_{1i}^*) - (W_i^*)^2 / (n-1)]}$$

$$W_i^* = \sum_{j=1}^n W_{ij}(d)$$

$$S_{1i}^* = \sum_{j=1}^n W_{ij}^2$$

$$s = \sum_{j=1}^n (x_j - \bar{x})^2 / n^{0.5}$$

위 식은 공간 j의 속성값과 공간 가중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여 공간 j의 속성값이 공간관계를 고려한 분포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분석을 위해 각 지점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거나 공간관계를 W_{ij} 로 모형화한다. 분석 결과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z값으로 제시되며 이 값의 절대값이 큰 경우 (>3) 큰 속성값을 가지는 집단이 군집을(Hot Spots) 이룬다고 해석하고, z값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3) 낮은 값이 군집을 이룬다(Cold Spots)고 분류하게 된다.

2)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지역분포

가)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인터넷에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수집한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목록 자료이다. 인터넷상에서 지역별로 상담센터나 놀이치료센터를 검색한 결과로 나타난 정보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후 기관별 주소를 확보하여 목록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색 결과의 수, 리뷰의 수, 웹 크롤링의 용이성 등 전반적인 편의성

을 고려하여 네이버 맵을 사용하였다. 네이버 맵에서 시군구별로 언어치료, 놀이치료, 상담센터를 키워드를 연결하여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검색 키워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언어치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놀이치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담센터”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군구 250개와 키워드 3개를 교차하여 검색 결과, 2024년 7월 31일 기준 총 9,141개의 상담센터 및 언어/놀이치료센터를 추출하였는데 소개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총 5,114개를 선정하였다.

나) 분석방법

(1) 자료의 전처리

키워드로 검색한 목록 중 유아 치료와 거리가 먼 기관은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상담소, 노인요양센터, 재활 및 돌봄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치료센터 여부를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 기관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개하는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유아’ 대신 ‘아동’을 사용하기에 ‘아동’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 연령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아동’ 키워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아동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아동 포함 전 연령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기관도 아동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는 심리 발달, 언어 발달, 행동 발달 등 포괄적인 범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기관 설명 페이지에 관련 단어(심리, 언어, 발달, 검사 등)가 포함된 경우, 치료센터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면(예: 치료센터이지만 아동 여부가 불확실 시, 아동 0, 치료 1로 표기) 아동 대상 치료센터가 아닌 곳으로 간주하였다. 검색 목록에 연결된 리뷰 및 블로그의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였다.

검색 및 전처리 결과 2024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아동치료 기관은 총 6,637개의 기관이 확인되었고, 그 중 아동 대상 기관은 총 5,114개이다. 자료에 포함된 필드는 기관의 네이버맵 주소(URL), 기관명, 검색 키워드,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URL), 아동 대상 유무, 치료기관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주소의 좌표변환과 Hot Spot / Cold Spot 분석

수집한 주소의 좌표변환과 공간군집 분석방법은 아동 대상 교육기관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사용되는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유아 대상 센터의 수,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을 산출하고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3)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 분석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비율과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을 살펴본다.

두 변수의 상관성을 보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하는 두 변수는 정규성(normality)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모수적 상관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자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또는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유의한 상관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어떤 지역이 정적 또는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는지를 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간적 패턴이 발생하는 유의미한 공간적 과정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t Spot / Cold Spot 분석은 주로 단변량에 대해 공간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데 비해, 두 변수의 공간적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관측치 또는 완전히 다른 관측치가 나타난다면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높다 또는 공간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를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부르고, 후자를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nega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부른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은 단변량 또는 이변량/다변량에 대해 전역적 상관성 또는 국지적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적 군집에 대한 공간통계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통계치로는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가 있다. LISA는 Anselin(1995)이 제안한 공간적 의존성에 대한 국지적 통계치로, 특정 지역과 주변 지역의 속성값들을 비교하여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속성값이 동시에 높은 HH(High-High) 유형이나 동시에 모두 낮은 LL(Low-Low) 유형의 국지적 군집 지역들을 도출해준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지역 즉, HL(High-Low) 유형이나 LH(Low-High) 유형의 탐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외국어 교습소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분포하는지 여부, 어떤 지역이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LISA는 단변량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입력 자료 변경을 통해 이변량 상관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이변량 LISA, 즉 국지적 Moran's I 를 사용한다.

이변량 국지적 Moran's I (I_i^B) 통계치는 간략히 말하면 위치 i 에서 한 변수의 값 x_i 와 이웃한 지역에서 다른 변수값의 평균을 의미하는($\sum_j W_{ij}y_j$) 다른 변수값의 공간적 지연(spatial lag)의 관계를 나타낸다. 변수와 다른 변수의 공간적 지연의 관계는 곱으로 표현되고, 두 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_i^B = cx_i \sum_j W_{ij}y_j$$

바. 정책토론회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5일(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분석방법을 논의하며, 제안한 유아교육 정책 시사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교육 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유아교육 전문가, 통계전문가,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사교육 기초자료에 대한 생각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설문조사 내용의 타당성 검증, 기초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여 대상은 부처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 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이며, 착수, 중간, 최종 단계의 정기적인 협의회와 연구 관련한 수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 01 사교육의 정의
- 0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 0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II. 연구의 배경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私教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한다(위키백과, 2024). 통계청(2022)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정의한 사교육(비)의 개념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비)를 뜻하고, 학원, 개인과 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아직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정의할 때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 개념과는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사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김지경(2004: 70)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사교육을 정의하였다. 전국 규모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한 차성현 외(2010: 25-26)의 연구에서도 사교육을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 기타 교육비로 유아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송정 외(2011: 36-37)의 연구 또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을 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예: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 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외부강사에 의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도 사교육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와 다르게, 이정원(2009), 민미희(2015), 이승미와 김언경(2018)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개

인 또는 그룹과외 등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지칭하여 사교육이라 정의하고, 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사교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광현과 권용재(2015: 86)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덧붙여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한 개념을 협의의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안주희와 곽승주(2017: 275)는 사교육을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과 유아교육기관 외 사교육으로 나누고,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으로, 유아교육기관 외 사교육은 학원, 센터 등 외부 사설기관교육과 학습지 등 가정방문교육으로 세분화하였다. 최효미와 김길숙, 이동하, 임준범(2016: 19)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에서 교육·보육 서비스를 4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중 사교육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거나 시간제학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선택적 교육·보육 서비스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후 최효미 외(2021a: 39-40)는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사교육을 반일제 이상 학원과 단시간 학원, 기타 사교육과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비대면 사교육도 포함하여 더욱 조사 범위를 확장하였다.

한편, 유아기의 사교육은 초·중·고 사교육과 다르게 ‘조기 사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조기 사교육’은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교육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을 가리킨다(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 250, 재인용). 혹은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기초한 ‘적기교육’과는 무관하게 주로 학교교육에 대비하는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학원교육, 개인/소집단 과외교육, 가정학습, 가정방문 교육,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등이 포함된다(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154).

이상의 사교육의 정의와 개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표 II-1-1〉 선행연구에서의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연구자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및 유형
김지경 (2004: 70)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실(사회 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우남희·백혜정·김 현신(2005: 6, 재인용)	•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하여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교육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학습 자극
강이주 (2007: 317)	• 정규 공교육비 이외에 지출되는 모든 교육비용을 말함. •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재능교육, 어학, 컴퓨터, 한문, 산수 등의 학원과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과 관련된 비용을 총칭함.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특별활동 포함
이정원 (2009: 36)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개인 또는 그룹과외 등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지칭 • 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포함
차성현 외 (2010: 25-26)	•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칭 •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도 유아사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
송정 외 (2011: 36-37)	• 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 •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외부강사에 의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특별 활동을 사교육 범위에 포함 • 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 되는 영유아 프로그램
서문희·양미선 (2013: 191-192)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각종 학원, 방문학습지,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비용으로 개념 정의
민미희 (2015: 121-122)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제외하여 어린이집 이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 • 각종 학원, 학습지와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주민센터, 인터넷 및 전화교육
이광현·권용재 (2015: 86)	•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의 개념으로 정의 • 원론적 사교육비 +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한 개념을 협의의 사교육비로 정의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 31-32)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사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학습을 유아 사교육으로 정의 •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부담 혹은 무상 공교육의 범주로 구분
안주희·곽승주 (2017: 277-278)	• 영어기 사교육: 만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가 성인으로부터 의도된 교육을 받는 형태를 의미함.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부모가 교육비를 사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모든 영역을 뜻함. • 사교육 유형: 문화센터, 짐보리 등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설기관교육/학습지 및 은물 등을 활용하는 가정방문교육/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이승미·김언경 (2018: 35)	• 1) 학원,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2)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혹은 그룹지도, 방문교사의 방문 교육, 3) 교사 없이 실시하는 학습지나 교구활용 교육, 4)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교육의 형태까지 포함

연구자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및 유형
최효미·이정원·김태우 (2021b: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반나절 이상 이용하는 주된 육아서비스 이외에 방과후(오후) 시간 등에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 공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적 영역의 교육서비스, 구체적으로 단시간 학원, 학습지, 교재교구 활동,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 •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 서비스에 해당하긴 하나 보육·교육서비스의 대체제로 반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서비스에서 제외 •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방과후 단시간 이용하는 서비스 이긴 하나 사교육 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이 포함된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교육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
박종서 외 (2021: 266,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포함), 공교육비(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돌봄비용(조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비혈연자 돌봄), 기타비용 항목으로 조사 • 사교육비는 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업비, 특별활동비는 제외
최정윤·양정호 (2022: 595-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비 및 사교육비로 구분함. 보육비는 유치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제외)과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뜻하고,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을 제외한 학원, 개인교습, 직장보육시설, 학습지 및 기타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말함. •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에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포함)/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직장보육시설/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예체능 개인교습, 기타

- 자료:
- 1) 김지경(2004).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6-86.
 - 2) 우남희·백해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3)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 4)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 5)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6)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7)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 8) 민미희(2015).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7-136.
 - 9)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83-107.
 - 10)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11) 안주희·곽승주(2017). 영아기 사교육 유형별 실태 및 교사-부모 인식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273-302.
 - 12) 이승미·김언경(2018). 유아 사교육 현황, 사교육에 대한 유아의 불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9(3), 31-48.
 - 13) 최효미·이정원·김태우(2021b).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5(1), 3-27.
 - 14)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최정윤·양정호(2022). 영유아의 보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비용 결정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589-608.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가. 사교육 관련법

사교육 관련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이 있으며, 자치법규로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를 뜻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는 학원의 교습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관할 교육감에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라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현재 17개 시도전체 지역 상황에 따른 조례가 모두 제정되었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에서 교습소와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시간에 따른 내용은 지역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표 II-2-1〉 시도별 조례에 따른 학원의 교습시간 차이

재학생 구분	교습시간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05:00~22:00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05:00~24:00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05:00~21:00 05:00~22:00	세종특별자치시

재학생 구분	교습시간	해당 지역
	05:00~22:00 05:00~23:50	전라남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5:00~21:00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05:00~22:00	
	05:00~23:00	
	05:00~21:0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05:00~23:00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05:00~24:00	
	05:00~22:00	
	05:00~23:00	
	05:00~24:00	

자료: 각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인출일: 2024. 2. 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의 제 8조를 살펴보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방과후학교 과정도 동일하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에 대한 규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방과후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3월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해 놓아 유아교육기관과 유사한 사교육기관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는 위의 내용을 위반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 4항에는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한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외국어 등 언어 분야,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나. 사교육 관련 정책

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황폐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야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6가지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수요 흡수, 유아 사교육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 공교육 내 교육과정·방과후에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을 연계하고 3~5세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와 같은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고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 16~18).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교육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847개를 전수조사 및 점검한 결과도 함께 발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이루어진 조사의 내용은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급식비·피복비·교통비 등),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규교습과정 중 영어 외에도 체육·미술·수학·과학·한글 등을 교습하는 경우가 적발되었고, 교습비의 경우 급식비·재료비·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 월 17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23: 18, 22~23).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부의 주요정책 중 10번째 중점과제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모델에서 유아를 예로 들면, 원어민, AI를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사교육기관을 대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2024b: 18).

〈표 II-2-2〉 사교육 관련 정책

정책	주요 추진과제	세부 내용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 2023)	1)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수능평가 실현 •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 • 카르텔·부조리 법정부 엄정 대응
	3)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 •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4)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활용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강화 • 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학습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5)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수요 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 • 방과후 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체육, 예술 사교육 흡수 • 다양한 초등 교과 사교육 문제 해소 •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
	6) 유아 사교육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확대 - 숨·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24.~) • 유보통합과 연계 및 교육과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 유보통합 모델 시안 제시(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교사 대비 영유아수 감축,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 -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돌봄 확대 - 유보통합 대비 및 2022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국교위 협업) •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실태조사 -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 정상화: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 추진.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 조기 사교육 부작용에 관한 연구 추진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2024a)	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원 연계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 '25년 최종완성: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자료: 1) 교육부(2023). 사교육 경감대책. p.16~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2.23.)

2)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6~8, 1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914> (인출일: 2024.2.23.)

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실태 관련 연구와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관련 연구

사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립 외(2015)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아동패널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이용, 기관 내 특별활동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김은영·김근진·윤지연, 2017)에서 한국은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으로 체육(20.9%), 미술(17.3%), 한글(13.3%)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와 유사하였다.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비교 국가 모두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한국이 2.2개로 비교국가인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에 비해 가장 많고, 주당 이용 횟수 또한 1.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은영·김근진·윤지연, 2017).

송정 등(2011)은 36개월 미만 영아기 자녀의 사교육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영아는 30.1%였고, 유아의 경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86.8%로 다수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세 25.0%, 만2세 46.6%, 만3세 67.1%, 만4세 83.0%, 만5~6세는 93.3%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차성현 외, 2010)에서 발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3세 이상의 초등학교 미취학 유아가 있는 전국의 2,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2,521가구(99.8%)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원 이상이며, 부모 10명 중 4명이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교육비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차성현 외, 2010). 서문희, 양미선(2013)의 연구에서는 3~5세 유아 중 약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다고 하였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재진(2011)은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반일제기관 이용 여부, 모의 취업 여부, 거주지역, 월 가구소득, 모의 학력, 자녀 수, 자녀출생순위, 아동의 만 연령 등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가구특성 면에서 보면 모가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사는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확률은 낮았으며, 아동의 만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이 높았다. 송정 등(2011)에 따르면 영아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3,888원이었으며, 영아에 따라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400,000원까지 다양한 비용 차이를 나타냈다. 유아의 경우는 189,522원으로 이는 유아 연령, 취학전 자녀 수,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원준(2018)은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내 학습량과 공교육 불안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선과 김주후(2010)는 연령이 높고 유아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영과 곽수란(2015)은 유아 사교육비는 공공의 지원과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김은영 외(2016)는 2세 자녀를 둔 맞벌이와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사교육을 덜 이용하고 5세 남아 자녀를 둔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율적 부모보다 사교육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정윤과 양정호(2022)는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첫째아 연령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첫째아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며, 자녀 수가 1명보다 2명 이상일수록 교육비 지출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이나 자산 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녀의 수나 자녀의 연령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김정욱과 배호중

(2021)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거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걱정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별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주로 결정하는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교육 문제는 가구의 경제적 측면이나 부담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 대한 걱정 정도나 자녀부양을 둘러싼 가치관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사교육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홍세희와 노언경(2017)은 만6세 때 사교육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모의 근로여부,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가구 연간소득, 부모와 거주여부, 다문화가정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입학 후 학업성취는 사교육을 많이 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사교육 집단, 중간 사교육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백승희와 정혜원(2017)은 사교육 시작 비율은 만0세에서 만3세 사이에 증가하다가 만3세 때 가장 높은 사교육 시작 비율을 보이고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고, 사교육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유아의 성별, 모의 연령, 거주지역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사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고,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빨리 시작했으며,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교육 시작 시점이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안주희와 곽승주(2017)의 연구에서 사교육 유형별 경험 실태는 특별활동, 사설 기관교육, 가정방문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기관 교육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신체활동을 위주로, 가정방문교육은 학습준비를 위한 한글·수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사교육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 과열현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또래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유형 중 사설기관교육에 대해 부모보다 교사가 영아의 참여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인식하였다. 가정방문교육은 부모와 교사 모두 영아기 활동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 교사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안주희·곽승

주, 2017).

송정 등(2011)은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영아의 경우 자녀의 흥미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은 19.4%로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경우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38.8%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흥미, 초등학교 학습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며. 실제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은 재능이나 소질의 계발과 관련된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교육 보다는 영어 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는 아이들이 영어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며 부모의 인식과 실제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효미 외(2021a: 184)의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사교육의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36.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27.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11.1%) 순으로 나타나 학습과 관련된 이유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 관련 연구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남희와 백혜정, 김현신 (2005)은 사교육을 조기에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등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은 어려서부터 빨리 많은 것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아들이 조기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기 사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3~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에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hi et al(2022)에 따르면 방과후 교습의 종류에 따라, 예술 및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들의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며, 예술 및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개선시켰지만, 예술, 과학 및 건강 활

동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아 사교육이 이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5세 유아의 언어능력을 조사한 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언어 및 어휘능력(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1)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언어 및 어휘능력(이기숙 외, 2013)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연구 결과 만5세의 어휘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국어성적과 어휘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휘를 풍부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권혜진, 정혜욱(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윤소정, 김진욱(2016)의 연구에서도 유아 사교육이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과외 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Ren et al(2020)에 따르면 과외활동 참여는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과외활동의 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때는 과외 활동의 횟수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시작하는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권정윤(2007)은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은 횟수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 백혜정 외(2005)도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수가 많아질수록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함께 위축, 우울, 불안 등 내재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양과 이성희(2004)는 만5세 유아의 과외활동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영역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심 상함, 부담감 등 모든 영역에서 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위집단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김성숙(2013)은 성인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과도한 사교육은 유아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승미(2015) 또한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에 의

해 자유로운 놀이시간이 부족한 것은 유아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체화주의 인지적 접근에 따르면, 체화적인 놀이를 통해 영유아기의 학습은 주어진 환경 내 자극에 대해 비목적적으로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며, 그 학습의 경로와 과정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활동성, 호기심, 지속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저마다 역동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놀이가 유아기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차기주·윤성규·이지윤, 2022). 이런 점을 볼 때에도 놀이 시간을 사교육으로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01 영유아 사교육 실태
- 0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 0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 04 소결(시사점)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³⁾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본 설문 조사와 이전 연구와의 비교 분석, 기존 실태자료 재분석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이용 변화 및 추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이전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인식 및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가. 사교육 이용 현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의 65.33%이고,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다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다는 경우 30.10%였다.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다니는 사교육의 경우 전체 평균 가짓수는 2.08개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 사교육 이용 여부는 자녀 연령, 자녀의 재원기관, 어머니/아버지 최종학력, 가구소득별로 집단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75.35%, 반일제학원에 다니는 경우 81.13%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59.56%), 가정양육의 경우(43.33%) 보다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3) 2016년(김은영 외, 2016), 2024년 조사의 결과분석은 모두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음. 또한 본 장에서 언급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추가로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에 있어서 자녀 연령과 지역 규모,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2세인 경우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5세의 경우는 학습 관련 사교육 그리고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추가 사교육 이용 가짓수 중 학습 관련 사교육 학원 수는 만2세에 비해 만3,5세가 많았다.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학원 수는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집단(1.41개)이 전문대 졸업 집단(1.23개) 보다 많았고,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집단(1.47개), 대도시(1.32개), 읍면도시(1.18개) 순으로 높았다. 다니고 있는 추가 사교육 개수를 전체 총계로 살펴보면 만2세(1.72개) 보다 만3세(2.09개)와 만5세(2.29개)가 많았고, 반일 제학원을 다니거나(2.74개)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2.21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1.94개)보다 많은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다니고 있는 추가 사교육 총계는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과 지역 규모, 가구소득별로도 집단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2.05개)와 중소도시(2.24개) 거주 집단이 읍면지역(1.65개) 거주집단 보다 많은 추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추가 사교육 가짓수(2.39개)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 1.89개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는 2024년 조사에서의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았다(표 III-1-2 참조). 해당 표는 전체 응답자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부록 표 5>~<부록 표 8>에는 어떤 유형이든 하나라도 사교육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와 각 유형별로 하나 이상 한 경우를 기본으로만 하여 수를 뽑아 두었다. 본문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만0세 때 경험했던 사교육 개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0.36개의 사교육을 경험하였고, 만1세 때는 0.73개,

만2세 1.29개, 만3세 2.01개, 만4세 2.19개, 만5세 3.15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한 사교육 개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3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는데, 만3세 때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의 경우는 여아 1.08개로 남아의 0.84개 보다 많았다. 만4세와 5세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의 개수가 남아 보다 여아가 많았고, 이는 전체 학원 총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의 결과로 이어졌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2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현재 연령이 어릴수록 동일 연령 경험에서의 사교육 가짓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조사시점과 가까운 연령에 대한 경험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오래 전 기억일수록 부정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고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사교육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설문지에서 사교육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만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문화센터를 사교육으로 인식하고 바로 응답할 확률이 높지만, 만5세 자녀를 둔 경우는 그동안의 사교육 경험이 흔재되어 최근에 주로 경험한 보다 ‘학원’ 형태의 교육을 사교육으로 인식하고 응답했을 수 있다.

자녀 재원기관에 따라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만1세반 경험에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가짓수와 전체 사교육 가짓수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예체능/기타 유형 0.49개, 전체 0.81개)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예체능/기타 유형 0.33개, 전체 0.57개) 보다 많았고, 만2세 때는 모든 유형의 사교육에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지속된다. 이러한 경향은 만3세 이후의 경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만4,5세 때의 경험에서는 현재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의 사교육 개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사교육 유형과 무관하게 월등히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가정일수록 사교육에 보다 친화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만2세반 이하의 경험에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이

용하는 사교육 개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향이 있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만3세반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비교적 어린 연령대의 경험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만0세반 경험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와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맞벌이인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었고, 만1세반 경험에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만2세반 경험에서는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역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보다 많이 하고 있었고, 만3세반 경험에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에서 그러하였다. 반면, 만4세와 5세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도 일부 연령에서 지역 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에서는 대표적으로 만4세반 경험에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와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중소도시 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소득은 만2세반 경험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인 집단이 학습 관련 사교육을 0.71개 했었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집단이 0.49개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III-1-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기준수: 2024년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기준수			
	이용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개(수)	학습 관련	(수)	예체능/ 기타 관련	(수)	총계 (수)
전체	65,33	34,67	100(1,500)	32,24	37,65	30,10	100(980)	1.85	(611)	1.36	(664)	2.08 (980)
지역 성별	63,25	36,75	100(770)	34,91	36,34	28,75	100(487)	1.90	(310)	1.34	(317)	2.09 (487)
남	67,53	32,47	100(730)	29,61	38,95	31,44	100(493)	1.79	(301)	1.38	(347)	2.07 (493)
여						3,159(2)		1.2		-0.7		0.2
$\chi^2(df), F$												
지역 연령												
만2세	51.00	49.00	100(500)	35,29	43,14	21,57	100(255)	1.42 ^b	(145)	1.41	(165)	1.72 ^b (255)
만3세	60,80	39,20	100(500)	35,20	35,86	28,95	100(304)	1.86 ^a	(195)	1.38	(197)	2.09 ^a (304)
만5세	84,20	15,80	100(500)	28,27	35,63	36,10	100(421)	2.07 ^a	(271)	1.33	(302)	2.29 ^a (421)
$\chi^2(df), F$	128,471(2)***			17,722(4)***			24,8(w)	0.7(w)				13,9***(w)
지역 지원기관												
유치원	75,35	24,65	100(507)	29,32	37,43	33,25	100(382)	2.01 ^a	(239)	1.36	(270)	2.21 ^a (382)
어린이집	59,56	40,44	100(910)	35,24	38,19	26,57	100(542)	1.73 ^a	(335)	1.34	(351)	1.94 ^b (542)
반일제학원	81,13	18,87	100(53)	18,60	32,56	48,84	100(43)	2.14 ^a	(29)	1.60	(35)	2.74 ^a (43)
가정양육	43,33	56,67	100(30)	38,46	38,46	23,08	100(13)	1.25 ^a	(8)	1.63	(8)	1.77 (13)
$\chi^2(df), F$	48,080(3)***			14,234(6)* (b)			4.5**	1.8				4.9**(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43	45,57	100(158)	40,70	37,21	22,09	100(86)	1.89	(54)	1.27	(51)	1.94 (86)
전문대졸	63,38	36,62	100(325)	35,92	38,83	25,24	100(206)	1.75	(126)	1.23 ^b	(132)	1.86 ^b (206)
4년제대졸	66,32	33,68	100(867)	30,61	37,91	31,48	100(575)	1.84	(357)	1.41 ^a	(399)	2.12 (575)
대학원졸 이상	75,33	24,67	100(150)	27,43	34,51	38,05	100(113)	2.05	(74)	1.40	(82)	2.36 ^a (113)
$\chi^2(df), F$	15,834(3)***			10,629(6)			1.2					3.1*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가짓수												
	이용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수)	총계 (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5.02	44.98	100(229)	34.13	38.10	27.78	100(126)	1.90	(78)	1.39	(83)								
전문대졸	64.36	35.64	100(289)	35.48	39.25	25.27	100(186)	1.89	(113)	1.30	(120)								
4년제대졸	67.87	32.13	100(803)	31.93	36.33	31.74	100(545)	1.76	(347)	1.38	(371)								
대학원졸 이상	70.06	29.94	100(157)	24.55	40.00	35.45	100(110)	2.20	(66)	1.37	(83)								
$\chi^2(df), F$	14.718(3)**			6.477(6)			2.5(w)			0.4									
맞벌이 여부																			
외벌이	60.89	39.11	100(514)	29.07	44.09	26.84	100(313)	1.71	(175)	1.30	(222)								
맞벌이	67.89	32.11	100(981)	33.63	34.68	31.68	100(666)	1.91	(435)	1.40	(442)								
미취업	20.00	80.00	100(5)	100.00	0.00	0.00	100(1)	1.00	(1)	—	—								
$\chi^2(df), F$	11.839(2)**(b)			10.139(4)**(b)			2.2			-1.8									
지역 규모																			
대도시	68.23	31.77	100(576)	30.79	36.39	32.82	100(393)	1.79	(250)	1.32 ^b	(272)								
중소도시	64.62	35.38	100(684)	33.71	34.39	31.90	100(442)	1.93	(290)	1.47 ^a	(293)								
읍면	60.42	39.58	100(240)	31.72	51.03	17.24	100(145)	1.72	(71)	1.18 ^c	(99)								
$\chi^2(df), F$	4.848(2)			18.288(4)**			1.6			9.1***(w)									
기구소득																			
300만원 미만	49.21	50.79	100(126)	43.55	29.03	27.42	100(62)	1.84	(44)	1.40	(35)								
300 이상~500만원	60.58	39.42	100(548)	30.42	43.37	26.20	100(332)	1.71	(188)	1.32	(231)								
500 이상~700만원	68.76	31.24	100(509)	33.43	38.86	27.71	100(350)	1.89	(214)	1.33	(233)								
700만원 이상	74.45	25.55	100(317)	30.08	30.08	39.83	100(236)	1.96	(165)	1.45	(165)								
$\chi^2(df), F$	34.196(3)***			21.033(6)**			1.6			1.3									
	주: 1) 일부 값에서 $F^2(1,1)$ 유의하더라도, 본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번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7대번호가 5보다 적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4)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1-2〉 각 연령별 시교육 경험(유형별 기댓수): 2024년

구분	만0세반 경험 (n=1,500)			만1세반 경험 (n=1,500)			만2세반 경험 (n=1,500)			만3세반 경험 (n=1,000)			만4세반 경험 (n=500)			만5세반 경험 (n=500)		
	학습 관련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전체	0.17	0.19	0.36	0.30	0.43	0.73	0.58	0.72	1.29	1.06	0.96	2.01	1.16	1.03	2.19	1.85	1.30	3.15
지녀 성별																		
남	0.18	0.20	0.38	0.32	0.40	0.72	0.58	0.67	1.25	1.02	0.84	1.86	1.05	0.81	1.86	1.81	1.14	2.95
여	0.16	0.19	0.35	0.28	0.46	0.73	0.58	0.76	1.34	1.09	1.08	2.18	1.28	1.27	2.55	1.89	1.47	3.35
<i>t</i>	0.6	0.3	0.5	1.3	-1.2	-0.2	0.1	-1.5	-0.9	-0.7	-3.0*	-2.0*	-1.7	-4.1***	-3.1**	-0.5	-2.9**	-1.7
자녀 연령																		
만2세	0.19	0.29 ^a	0.48 ^a	0.42 ^a	0.69 ^a	1.10 ^a	0.82 ^a	1.06 ^a	1.87 ^a	-	-	-	-	-	-	-	-	-
만3세	0.20	0.21 ^a	0.41 ^a	0.33 ^a	0.45 ^b	0.78 ^b	0.68 ^a	0.81 ^b	1.49 ^b	1.41	1.24	2.65	-	-	-	-	-	-
만5세	0.12	0.09 ^b	0.21 ^c	0.15 ^b	0.15 ^c	0.30 ^c	0.24 ^b	0.28 ^c	0.52 ^c	0.70	0.68	1.38	1.16	1.03	2.19	1.85	1.30	3.15
<i>F/t</i>	2.0(a)	14.4*** ^(w)	8.6*** ^(w)	24.8*** ^(w)	53.2*** ^(w)	52.7*** ^(w)	60.4*** ^(w)	78.1*** ^(w)	92.4*** ^(w)	7.43***	6.98***	8.18***	NA	NA	NA	NA	NA	NA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15	0.16	0.31	0.23	0.33 ^b	0.57 ^b	0.45 ^b	0.57 ^b	1.02 ^b	1.07	0.98	2.05	1.20 ^b	1.13	2.33 ^b	1.88	1.39	3.28
어린이집	0.16	0.20	0.36	0.32	0.49 ^a	0.81 ^a	0.63 ^a	0.80 ^a	1.43 ^a	1.01	0.90	1.91	0.98 ^b	0.85 ^b	1.83 ^b	1.70 ^b	1.12	2.82 ^b
반일제학원	0.49	0.23	0.72	0.62	0.34	0.96	0.92 ^a	0.81	1.74	1.46	1.24	2.71	2.19 ^a	1.54 ^a	3.73 ^a	2.73 ^a	1.73	4.46 ^a
가정학습	0.17	0.37	0.53	0.33	0.33	0.67	0.57	0.60	1.17	-	-	-	-	-	-	-	-	-
<i>F</i>	0.9(w)	0.8(w)	2.0(a)	3.2*(w)	3.6*(w)	3.4*(w)	4.9***(w)	4.4***(w)	5.7*** ^(w)	1.7	1.4	2.0	6.5***(w)	5.2***(w)	7.4**	3.9*	4.4*	5.7***(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27	0.29	0.56	0.42	0.59	1.01	0.75	0.81	1.56	1.14	0.87	2.01	0.91	0.86	1.77	1.61	1.00	2.61
전문대졸	0.11 ^b	0.10 ^b	0.21 ^b	0.22 ^b	0.35	0.58 ^b	0.46 ^b	0.59 ^b	1.05 ^b	0.93	0.93	1.85	1.26	0.97	2.23	1.97	1.23	3.20
4년제대졸	0.14 ^b	0.18	0.32 ^b	0.28	0.40	0.68	0.56	0.71	1.27	1.03	0.96	2.00	1.21	1.09	2.30	1.87	1.38	3.25
대학원졸 이상	0.38 ^a	0.36 ^a	0.74 ^a	0.46 ^a	0.59	1.05 ^a	0.76 ^a	0.92 ^a	1.68 ^a	1.41	1.10	2.51	0.85	1.08	1.93	1.73	1.33	3.05
<i>F</i>	3.8*(w)	5.4***(w)	5.6***(w)	3.9***(w)	3.0***(w)	4.4***(w)	4.0***(w)	3.1***(w)	4.6***(w)	2.4(a)	0.6	1.6(a)	1.3	0.7	0.8	0.6	1.6	0.9

구분	만0세반 경험 (n=1,500)			만1세반 경험 (n=1,500)			만2세반 경험 (n=1,500)			만3세반 경험 (n=1,000)			만4세반 경험 (n=500)			만5세반 경험 (n=500)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15	0.16	0.31	0.25	0.42	0.67	0.44	0.68	1.12	0.78 ^b	0.88	1.66	0.86	0.95	1.81	1.57	1.10	2.67	
전문대졸	0.18	0.27	0.45	0.31	0.50	0.81	0.57	0.73	1.30	1.13	0.96	2.08	1.18	0.97	2.15	2.00	1.14	3.14	
4년제 대졸	0.15	0.18	0.34	0.30	0.43	0.73	0.62	0.73	1.35	1.04	0.95	1.98	1.23	1.06	2.29	1.84	1.37	3.20	
대학원 졸업 이상	0.25	0.17	0.42	0.36	0.33	0.69	0.57	0.65	1.22	1.44 ^a	1.10	2.54	1.31	1.13	2.44	2.15	1.60	3.75	
F	1.0(a)	1.5(a)	0.9(a)	0.7(a)	1.1(a)	0.5	1.8(a)	0.3	0.9	3.8*(w)	0.6	2.6	1.4(a)	0.3	0.9	1.3(a)	2.5	1.7(a)	
맞벌이 여부																			
외별이	0.10 ^b	0.14	0.25 ^b	0.23 ^b	0.38	0.61	0.50	0.62	1.12 ^b	0.86 ^b	0.96	1.82	1.14	1.08	2.22	1.75	1.42	3.17	
맞벌이	0.21 ^a	0.22	0.42 ^a	0.34 ^a	0.45	0.79	0.62	0.76	1.38 ^a	1.15 ^a	0.95	2.10	1.17	1.01	2.18	1.91	1.24	3.15	
미취업	0.20	0.40	0.60	0.20	0.80	1.00	1.00	1.20	2.20	2.00	4.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	5.6*(w)	2.3(a)	5.0*(w)	4.4*(w)	1.3(a)	2.5(a)	2.7(a)	2.9(a)	3.7*	4.4*(w)	1.0	2.3	0.3	0.5	0.4	1.0	1.7(a)	0.7	
지역 규모																			
대도시	0.15	0.15	0.29	0.29	0.38	0.66	0.60	0.71	1.31	1.19	1.11 ^a	2.30	1.30	1.25 ^a	2.55 ^a	1.99	1.49	3.48	
중소도시	0.19	0.23	0.42	0.31	0.47	0.78	0.60	0.72	1.32	1.00	0.87 ^b	1.87	1.00	0.89 ^b	1.88 ^b	1.80	1.20	3.00	
읍면	0.16	0.21	0.37	0.29	0.45	0.74	0.47	0.72	1.19	0.91	0.84	1.75	1.29	0.93	2.22	1.65	1.13	2.78	
F	0.7	2.5(a)	1.7(a)	0.2	1.5(a)	0.9	1.5(a)	0.0	0.4	2.4	4.2*	4.0*	2.3	0.3	0.5	0.4	1.0	1.7(a)	0.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29	0.24	0.53	0.27	0.44	0.71	0.71	0.67	1.37	1.16	0.82	1.98	1.03	0.80	1.88	2.26	1.40	3.66	
300 이상~500만원	0.15	0.17	0.32	0.27	0.39	0.66	0.49 ^b	0.73	1.22	0.98	0.99	1.97	1.12	0.95	2.07	1.69	1.22	2.91	
500 이상~700만원	0.12	0.21	0.33	0.30	0.45	0.76	0.56	0.67	1.23	1.08	0.94	2.03	1.17	1.04	2.22	1.87	1.29	3.17	
700만원 이상	0.23	0.20	0.43	0.35	0.45	0.80	0.71 ^a	0.79	1.49	1.10	0.98	2.08	1.25	1.21	2.46	1.93	1.39	3.32	
F	2.6*(w)	0.5	1.6(a)	0.9	0.4	0.6	3.2*(w)	0.8	1.6	0.5	0.4	0.1	0.3	0.3	1.3	0.8	1.1	0.5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본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事后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만1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보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로 다니는 사교육의 주당 이용 횟수과 회당 시간에 대한 2024년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이고,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다. 자녀 연령별로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모두에서 차이가 뚜렷했는데, 만2세의 주당 횟수는 2.93회, 만3세 4.28회, 만5세 5.83회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횟수도 증가했고, 회당 시간도 만2세에 비해 만3, 5세에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재원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반일제학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다 회당 평균 시간이 길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의 회당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집단(약 38분)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약 44분)에 비해 회당 시간이 확연히 짧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였고, 월평균 7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고소득의 가구(각각 약 43분, 42분)가 300만원 미만 가구(약 35분) 보다 회당 시간이 길었다.

III

〈표 III-1-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 2024년

구분	(수)	주당 횟수		회당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0)	4.59	4.51	41.54	17.39
자녀 성별					
남	(487)	4.69	4.54	41.52	17.90
여	(493)	4.49	4.50	41.56	16.89
t		0.7		0.0	
자녀 연령					
만2세	(255)	2.93 ^c	3.61	37.58 ^b	13.67
만3세	(304)	4.28 ^b	4.24	41.10 ^a	18.58
만5세	(421)	5.83 ^a	4.83	44.26 ^a	18.05
F		36.5*** (w)		14.8*** (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82)	5.04	4.42	43.49 ^a	17.26
어린이집	(542)	4.27	4.60	39.58 ^b	17.41
반일제학원	(43)	5.23	4.57	48.02 ^a	16.19
가정양육	(13)	3.08	1.71	44.49	13.25
F		3.0*		6.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6)	4.92	5.45	38.34 ^a	17.98
전문대졸	(206)	4.38	4.35	39.49 ^a	17.61
4년제대학	(575)	4.58	4.43	42.75 ^a	17.23
대학원졸 이상	(113)	4.79	4.49	41.53 ^a	16.90
F		0.4		2.9*	

구분	(수)	주당 횟수		회당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6)	4.86	4.39	37.73 ^b	14.27
전문대졸	(186)	4.80	5.06	40.81	19.42
4년제대학	(545)	4.36	4.01	42.11	17.06
대학원졸 이상	(110)	5.16	5.96	44.34 ^a	17.61
F		1.3(a)		3.3*	
맞벌이 여부					
외벌이	(313)	4.14	4.14	41.97	17.55
맞벌이	(666)	4.81	4.67	41.35	17.33
미취업	(1)	1.00	0.00	30.00	0.00
F		2.7		0.4	
지역 규모					
대도시	(393)	4.32	3.92	42.47	17.15
중소도시	(442)	5.01	4.92	40.53	17.45
읍면	(145)	4.07	4.65	42.11	17.80
F		3.3*(w)		1.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2)	5.32	5.91	35.09 ^b	14.98
300 이상~500만원	(332)	4.17	4.66	41.22	16.19
500 이상~700만원	(350)	4.65	4.24	42.26 ^a	18.73
700만원 이상	(236)	4.91	4.25	42.61 ^a	17.28
F		1.9		3.4*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사교육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사교육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시점 기준 자녀 연령에 따른 사교육 시작 평균 연령 차이는 회고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한 응답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원기관에 따른 차이에서 16명만이 응답한 가정양육을 제외하고 해석해보면, 타집단에 비해 사교육에 보다 친화적인 성향의 가구일 수 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사교육 시작 연령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1.67세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반면, 전문대 졸업인 경우는 2.23세로 두 집단 간 시작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4〉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24년

구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만0세반 경험	만1세반 경험	만2세반 경험	만3세반 경험	만4세반 경험	만5세반 경험			
전체	19.53	19.78	22.87	20.45	8.68	8.68	100.00(1,198)	2.05	1.52
자녀 성별									
남	19.97	18.62	22.48	18.62	9.06	11.24	100.00(596)	2.12	1.59
여	19.10	20.93	23.26	22.26	8.31	6.15	100.00(602)	1.98	1.44
$\chi^2(df)/t$	18.069(6)**							1.6	
자녀 연령									
만2세	32.96	33.24	33.80	0.00	0.00	0.00	100.00(358)	1.01 ^a	0.82
만3세	19.11	21.73	26.70	32.46	0.00	0.00	100.00(382)	1.73 ^b	1.11
만5세	9.39	7.64	11.14	26.42	22.71	22.71	100.00(458)	3.14 ^a	1.54
$\chi^2(df)/F$	702.895(12)***							322.0***(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3.89	13.66	15.51	31.25	13.19	12.50	100.00(432)	2.54 ^a	1.54
어린이집	22.35	23.07	27.08	14.47	5.87	7.16	100.00(698)	1.80 ^b	1.45
반일제학원	21.15	23.08	26.92	17.31	11.54	0.00	100.00(52)	1.75 ^b	1.30
가정양육	43.75	31.25	25.00	0.00	0.00	0.00	100.00(16)	0.81 ^c	0.83
$\chi^2(df)/F$	157.263(18)***(b)							32.7***(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93	20.51	18.80	20.51	6.84	9.40	100.00(117)	1.94	1.58
전문대졸	13.15	20.72	23.51	23.90	9.96	8.76	100.00(251)	2.23 ^a	1.45
4년제대졸	18.62	19.20	24.21	20.63	8.74	8.60	100.00(698)	2.07	1.50
대학원졸 이상	32.58	20.45	18.18	12.88	7.58	8.33	100.00(132)	1.67 ^b	1.61
$\chi^2(df)/F$	39.983(18)**							4.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28	22.09	20.93	24.42	8.72	7.56	100.00(172)	2.10	1.47
전문대졸	22.37	21.93	20.18	19.30	8.77	7.46	100.00(228)	1.93	1.53
4년제대졸	19.60	18.99	24.20	19.14	8.58	9.49	100.00(653)	2.07	1.54
대학원졸 이상	17.83	18.60	23.26	24.81	8.53	6.98	100.00(129)	2.09	1.46
$\chi^2(df)/F$	14.467(18)							0.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7.92	20.52	20.00	23.64	9.35	8.57	100.00(385)	2.12	1.52
맞벌이	20.25	19.51	24.07	19.01	8.40	8.77	100.00(810)	2.02	1.52
미취업	33.33	0.00	66.67	0.00	0.00	0.00	100.00(3)	1.33	1.15
$\chi^2(df)/F$	22.543(12)*(b)							0.9	

구분	만0세반 경험	만1세반 경험	만2세반 경험	만3세반 경험	만4세반 경험	만5세반 경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15.80	19.26	25.97	22.73	8.44	7.79	100.00(462)	2.12	1.44
중소도시	21.49	19.67	21.68	19.67	7.83	9.65	100.00(549)	2.02	1.56
읍면	22.99	21.39	18.72	17.11	11.76	8.02	100.00(187)	1.97	1.58
$\chi^2(df)/F$					16.105(12)				0.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89	21.11	24.44	13.33	2.22	10.00	100.00(90)	1.69	1.56
300 이상~500만원	15.90	20.72	24.34	20.96	9.88	8.19	100.00(415)	2.13	1.47
500 이상~700만원	19.95	18.75	21.39	20.43	9.62	9.86	100.00(416)	2.11	1.57
700만원 이상	21.30	19.49	22.38	22.02	7.58	7.22	100.00(277)	1.97	1.49
$\chi^2(df)/F$					41.281(18)**				2.5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n세반 경험”이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으로 응답받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교육은 체육으로 48.91%, 그 다음으로 교구 37.90%, 미술 29.63%, 영어 27.05%, 국어 21.12%, 음악 20.78%, 수학 15.61%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자녀가 2세인 경우 교구를 첫 사교육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컸으며, 만3세와 만5세로 갈수록 국어, 수학을 첫 사교육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앞서 〈표 III-1-4〉 해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고 효과와 사교육 정의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다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별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5〉 (사교육 유경험자)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2024년

구분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교구	학습기타 (학습자 등)	체육	무용	음악	미술	요리	기타	단위: %
전체	21.12	2.25	27.05	4.26	15.61	4.51	3.67	37.90	0.67	48.91	12.19	20.78	29.63	11.60	0.83	
자녀 성별																
남	23.99	2.35	28.36	5.20	17.28	4.70	3.52	36.07	1.01	53.52	5.03	18.62	26.51	12.75	0.84	
여	18.27	2.16	25.75	3.32	13.95	4.32	3.82	39.70	0.33	44.35	19.27	22.92	32.72	10.47	0.83	
자녀 연령																
만2세	10.61	1.12	21.51	2.51	5.03	2.23	0.84	52.51	0.56	57.54	8.10	26.26	29.33	13.41	0.84	
만3세	23.04	3.40	28.80	3.93	16.23	7.33	6.02	39.27	1.05	50.00	13.61	25.39	32.98	15.45	1.31	
만5세	27.73	2.18	29.91	5.90	23.36	3.93	3.93	25.33	0.44	41.27	14.19	12.66	27.07	6.99	0.4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3.15	2.55	30.79	5.32	19.91	5.32	4.40	30.56	1.16	47.45	15.51	18.52	31.25	11.11	0.69	
어린이집	20.49	2.01	24.21	3.30	13.47	4.01	3.15	41.12	0.43	50.43	10.03	22.78	29.08	12.32	1.00	
번일제학원	19.23	3.85	40.38	9.62	13.46	5.77	5.77	46.15	0.00	42.31	11.54	13.46	25.00	7.69	0.00	
기정양육	0.00	0.00	6.25	0.00	0.00	0.00	0.00	68.75	0.00	43.75	18.75	18.75	25.00	6.25	0.00	
0~마니 초중학력																
고졸 이하	22.22	3.42	29.91	5.98	17.09	4.27	5.98	45.30	0.85	47.86	10.26	23.93	33.33	16.24	0.00	
전문대졸	26.29	1.99	23.90	3.19	18.73	3.98	1.99	33.47	0.00	51.39	12.35	16.73	28.29	9.96	0.00	
4년제대졸	20.49	1.72	27.51	3.58	14.76	4.30	3.44	36.96	1.00	48.14	12.32	20.49	29.80	11.75	1.43	
대학원졸 이상	13.64	4.55	28.03	8.33	12.88	6.82	6.06	44.70	0.00	49.24	12.88	27.27	28.03	9.85	0.00	

구분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교구	학습기타 (학습지 등)	체육	무용	음악	미술	요리	기타
0~6세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84	2.91	20.93	5.23	15.70	2.91	37.21	0.58	51.74	8.14	18.60	26.74	14.53	2.91	
전문대졸	21.49	0.88	25.00	3.07	16.23	3.95	6.14	35.96	0.88	51.75	11.84	25.88	35.09	14.04	0.00
4년제대졸	19.30	2.45	28.64	3.98	14.85	4.59	2.60	39.05	0.61	47.01	13.32	19.60	28.48	10.26	0.77
대학원졸 이상	26.36	3.10	33.33	6.20	19.38	7.75	6.20	35.66	0.78	50.39	12.40	20.93	28.68	10.85	0.00
맞벌이 여부															
외별0	20.52	1.56	26.23	3.64	13.51	3.64	1.56	35.32	0.78	51.43	11.69	20.26	30.65	11.43	0.78
맞벌0	21.36	2.59	27.53	4.57	16.67	4.94	4.69	39.01	0.62	47.90	12.35	21.11	29.01	11.60	0.86
미취업	33.33	0.00	0.00	0.00	0.00	0.00	66.67	0.00	0.00	33.33	0.00	66.67	33.33	0.00	
지역 구도															
대도시	21.43	1.95	32.25	3.68	15.15	5.63	3.68	35.71	0.87	50.87	13.20	21.00	32.25	11.26	0.65
중소도시	20.22	3.10	24.41	4.55	16.39	4.19	3.46	38.80	0.73	46.81	11.84	18.94	27.87	12.57	1.09
읍면	22.99	0.53	21.93	4.81	14.44	2.67	4.28	40.64	0.00	50.27	10.70	25.67	28.34	9.63	0.5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56	2.22	28.89	7.78	18.89	6.67	8.89	45.56	1.11	50.00	7.78	25.56	24.44	14.44	1.11
300 이상~500만원	19.76	2.17	23.86	3.86	12.77	3.61	3.61	35.42	1.20	48.92	14.70	23.37	31.08	12.53	0.96
500 이상~700만원	22.84	2.16	30.29	3.61	17.79	4.33	2.64	35.82	0.48	52.64	9.38	20.67	30.29	10.58	0.72
700만원 이상	19.13	2.53	26.35	4.69	15.52	5.42	3.61	42.24	0.00	42.96	14.08	15.52	28.16	10.83	0.72

주: 복수응답임.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나. 사교육 비용

월간 사교육 비용 조사 결과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은 평균 19만 8천원이고,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으로 나왔다. 자녀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여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따른 차이는 반일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사교육 비용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였다. 또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인 경우 보다 사교육 비용이 높았다. 지역규모의 경우, 전체 사교육 비용과,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유형에서 모두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지역에 비해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과 500만원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존재했다.

〈표 III-1-6〉 월간 사교육 비용: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0)	198.00	184.10	(611)	163.31	153.24	(664)	141.96	106.09
자녀 성별									
남	(487)	203.47	196.76	(310)	172.49	173.06	(317)	143.90	106.39
여	(493)	192.61	170.70	(301)	153.85	129.32	(347)	140.19	105.93
<i>t</i>		0.9			1.5			0.5	
자녀 연령									
만2세	(255)	136.92 ^c	137.06	(145)	121.79 ^b	119.79	(165)	104.57 ^c	92.08
만3세	(304)	194.78 ^b	190.43	(195)	164.91 ^a	166.80	(197)	137.34 ^b	118.06
만5세	(421)	237.33 ^a	194.04	(271)	184.36 ^a	155.04	(302)	165.41 ^a	98.80
<i>F</i>		31.4*** (w)			8.1***			18.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82)	224.58 ^b	194.00	(239)	186.77 ^b	158.49	(270)	152.41 ^b	97.53
어린이집	(542)	161.99 ^c	138.32	(335)	132.13 ^c	112.67	(351)	124.02 ^c	88.07
반일제학원	(43)	429.23 ^a	347.77	(29)	338.48 ^a	309.56	(35)	246.89 ^a	217.33
가정양육	(13)	153.85 ^c	96.91	(8)	132.50 ^c	98.38	(8)	117.50 ^c	84.13
<i>F</i>		17.0*** (w)			10.2*** (w)			7.5** (w)	

구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6)	181.92	164.27	(54)	166.41	169.73	(51)	130.57	82.45
전문대졸	(206)	157.16 ^b	116.97	(126)	123.83 ^b	75.03	(132)	127.06	85.46
4년제대졸	(575)	208.76 ^a	194.12	(357)	167.81 ^a	145.19	(399)	150.69	118.57
대학원졸 이상	(113)	230.00 ^a	229.57	(74)	206.51 ^a	241.20	(82)	130.59	78.00
<i>F</i>		8.2***(<i>w</i>)			8.1***(<i>w</i>)			2.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6)	189.61	154.59	(78)	142.48 ^a	129.80	(83)	153.94	107.85
전문대졸	(186)	168.90 ^b	168.51	(113)	140.26 ^a	113.91	(120)	129.72	111.23
4년제대졸	(545)	200.36	179.53	(347)	166.01 ^a	143.44	(371)	139.06	96.92
대학원졸 이상	(110)	253.87 ^a	249.17	(66)	221.43 ^a	250.51	(83)	160.37	133.39
<i>F</i>		3.7*(<i>w</i>)			3.0*(<i>w</i>)			1.8	
맞벌이 여부									
외벌이	(313)	178.26	157.20	(175)	148.78	132.40	(222)	134.05	97.07
맞벌이	(666)	207.54	194.89	(435)	169.46	160.66	(442)	145.94	110.23
미취업	(1)	30.00	0.00	(1)	30.00	0.00	(0)	0.00	0.00
<i>F</i>		-			1.5			1.9	
지역 규모									
대도시	(393)	198.93 ^a	165.47	(250)	165.80	135.64	(272)	135.03	89.24
중소도시	(442)	210.28 ^a	209.49	(290)	164.19	169.12	(293)	154.70 ^a	126.68
읍면	(145)	158.09 ^b	139.29	(71)	150.92	144.64	(99)	123.31 ^b	73.01
<i>F</i>		6.3**(<i>w</i>)			0.3			4.7*(<i>w</i>)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2)	157.95 ^c	142.01	(44)	119.80 ^b	103.99	(35)	129.20	105.92
300이상~500만원	(332)	164.21 ^c	150.09	(188)	130.70 ^b	104.20	(231)	129.64	93.69
500이상~700만원	(350)	206.35 ^b	180.80	(214)	174.53 ^a	156.05	(233)	149.67	104.68
700만원 이상	(236)	243.68 ^a	226.80	(165)	197.49 ^a	193.48	(165)	151.04	122.24
<i>F</i>		9.6***(<i>w</i>)			8.4***(<i>w</i>)			2.0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응답자 대상의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이었고, 표준 편차가 921.25로 매우 커졌다. 100만원 미만의 학원을 보내는 가정은 11.32%이고, 350만원 이상 학원을 보내는 가정도 7.55%인 것으로 나타나, 반일제 이상 학원별 비용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24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150 만원	150 ~200 만원	200 ~250 만원	250 ~350 만원	350 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32	18.87	28.30	24.53	9.43	7.55	100.00(53)	1829.25	921.25
자녀 성별									
남	11.11	18.52	29.63	22.22	14.81	3.70	100.00(27)	1807.41	869.87
여	11.54	19.23	26.92	26.92	3.85	11.54	100.00(26)	1851.92	988.58
$\chi^2(df)/t$									-0.2
자녀 연령									
만2세	8.33	25.00	25.00	8.33	25.00	8.33	100.00(12)	1975.00	1234.45
만3세	6.67	26.67	20.00	33.33	0.00	13.33	100.00(15)	1960.00	1060.86
만5세	15.38	11.54	34.62	26.92	7.69	3.85	100.00(26)	1686.54	650.32
$\chi^2(df)/F$									0.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1)	800.00	0.00
전문대졸	16.67	16.67	33.33	0.00	16.67	16.67	100.00(6)	1966.67	1112.95
4년제대졸	8.57	20.00	31.43	28.57	5.71	5.71	100.00(35)	1774.29	795.24
대학원졸 이상	9.09	18.18	18.18	27.27	18.18	9.09	100.00(11)	2022.73	1214.36
$\chi^2(df)/F$									0.7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67	0.00	0.00	0.00	0.00	33.33	100.00(3)	1733.33	1616.58
전문대졸	14.29	42.86	0.00	0.00	14.29	28.57	100.00(7)	2150.00	1705.63
4년제대졸	7.14	10.71	46.43	21.43	14.29	0.00	100.00(28)	1741.07	520.16
대학원졸 이상	6.67	26.67	13.33	46.67	0.00	6.67	100.00(15)	1863.33	969.62
$\chi^2(df)/F$									0.4(a)
맞벌이 여부									
외벌이	12.50	18.75	31.25	18.75	12.50	6.25	100.00(16)	1771.88	717.86
맞벌이	10.81	18.92	27.03	27.03	8.11	8.11	100.00(37)	1854.05	1004.53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chi^2(df)/F$									0.1
지역 구모									
대도시	9.68	16.13	25.81	29.03	16.13	3.23	100.00(31)	1867.74	833.92
중소도시	11.11	16.67	33.33	22.22	0.00	16.67	100.00(18)	1933.33	1082.48
읍면	25.00	50.00	25.00	0.00	0.00	0.00	100.00(4)	1062.50	502.29
$\chi^2(df)/F$									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50.00	0.00	0.00	50.00	0.00	100.00(2)	2000.00	1414.21
300 이상~500만원	40.00	20.00	0.00	20.00	0.00	20.00	100.00(5)	1680.00	1173.46
500 이상~700만원	16.67	27.78	38.89	5.56	5.56	5.56	100.00(18)	1611.11	992.70
700만원 이상	3.57	10.71	28.57	39.29	10.71	7.14	100.00(28)	1983.93	820.46
$\chi^2(df)/F$									0.7

주: 1)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가. 사교육 이용 변화 및 추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면서, 별도의 사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사교육의 유형⁴⁾과 가짓수에 대해 조사연도 별로 비교해 보았다. 본 조사에서 사교육이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뤄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한다.

2세의 경우, 2016년에는 추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1.15%였는데, 2024년에는 51.00%로 2세의 추가 사교육 이용 여부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 유형으로 2016년은 학습 관련 사교육이 42.53%였고, 학습 관련 사교육 가짓수는 1.35개였다. 예체능과 학습 관련 사교육 모두 받는다는 응답도 34.84%로 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세의 경우,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2016년 22.62%에서 2024년 43.1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5세의 경우, 추가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016년, 2024년 조사 모두 8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세와 유사하게 예체능/기타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2016년(20.03%)에 비해 2024년(35.63%)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는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가짓수가 2016년 1.64개였는데, 2024년 2.07개로 증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4) 본 보고서의 사교육 유형은 각 조사연도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2016년 조사] 1) 학습 관련 사교육: 수, 과학, 창의, 언어 등, 2) 예체능 관련 사교육: 음악, 미술, 체육 등
- [2024년 조사] 1) 학습 관련 사교육: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한자 포함), 수학, 과학(과학실험, 드론, AI 관련 등), 컴퓨터(코딩 포함), 교구(가베, 몬테소리, 프로펠 블록, 오감놀이 등) 등 2) 예체능 관련 사교육: 체육, 무용(발레, 댄스 등), 음악, 미술 등, 3) 기타 사교육: 인성교육, 다도, 이야기할머니, 요리 등

〈표 III-2-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가짓수						
		이용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계(수)	학습 관련	(수)	예체능/ 기타 관련	(수)	총계	(수)
2세	2016	41.15	58.85	100 (537)	42.53	22.62	34.84	100 (221)	1.35	(171)	1.28	(127)	1.77	(221)
	2024	51.00	49.00	100 (500)	35.29	43.14	21.57	100 (255)	1.42	(145)	1.41	(165)	1.72	(255)
	<i>t</i>								-0.95		-1.45		0.51	
5세	2016	81.53	18.47	100 (704)	29.62	20.03	50.35	100 (574)	1.64	(459)	1.37	(404)	2.28	(574)
	2024	84.20	15.80	100 (500)	28.27	35.63	36.10	100 (421)	2.07	(271)	1.33	(302)	2.29	(421)
	<i>t</i>								-5.42***		0.87		-0.13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학원 이용 추이는 〈표 III-2-2〉과 같다. 2004년에는 8.7%의 미취학 아동이 시간제학원을 이용했으며, 2009년에는 12.8%, 2012년에는 20.4%, 2015년에는 17.5%, 2018년에는 22.3%, 2021년에는 21.1%로 나타나 추이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은설 외(2016)는 2015년의 시간제학원 이용률 감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하였으며, 2021년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김은설 외, 2021).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2004년 1.9%에서 2009년 2.9%, 2012년 5.4%, 2015년 5.6%, 2018년 8.7%, 2021년 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2〉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시간제학원 개수

구분								단위: %, (명)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2004	91.3	6.8	1.5	0.4	–	–	100.0(2,962)	
2009	87.2	9.9	2.2	0.5	0.2	–	100.0(3,303)	
2012	79.6	15.0	4.3	0.8	0.2	0.1	100.0(3,343)	
2015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2018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2021	78.9	11.3	4.7	3.2	1.3	0.6	100.0(3,471)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①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1. 〈표 7-2-1〉.

-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0. 〈표 VII-2-1〉.
-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50. 〈표 X-2-1〉.
- 4)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6. 〈표 X-2-1〉.
- 5) 이정원·이정립·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52. 〈표 X-2-1〉.
- 6)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05. 〈표 X-2-1〉.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반일제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시간제학원이용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9년 20.1%, 2012년에는 45.2%, 2015년에는 35.1%, 2018년에는 32.6%, 2021년에는 43.0%였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9년에 38.4%, 2012년에 43.3%, 2015년에 48.6%, 2018년에 49.8%, 2021년에는 46.9%였다. 2021년에는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표 III-2-3〉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이용안함	계
2009	20.1	38.4	5.7	0.5	35.3	100.0(422)
2012	45.2	43.3	5.8	0.5	5.2	100.0(614)
2015	35.1	48.6	3.3	0.9	12.1	100.0(522)
2018	32.6	49.8	5.7	–	11.9	100.0(741)
2021	43.0	46.9	6.5	–	3.7	100.0(692)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는 영유아를 합산한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2. 〈표 VII-2-3〉.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49. 〈표 X-1-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5. 〈표 X-1-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50-551. 〈표 X-1-3〉.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03-504. 〈표 X-1-2〉.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5회의 조사연도에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예능(미술, 음악)과 체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과 2021년에는 시간제학원과 개별교육 이용비율이 이전 조사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의 특기교육 실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김은설 외, 2016).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대면 교육을 제한한 결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1).

수학과 과학 영역을 통합하여 보면, 2009년에는 영유아 합계로 6.1%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6.9%, 2021년에는 22.6%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로 영아가 이용하는 영유아교육전문 영역을 제외하고는 5회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영역별 시간제학원 이용률이 영아보다 유아에게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4〉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13.8	28.8	14.8	23.5	13.7	40.3	-	2.6	-	3.5	1.2	4.6	-	-
2012	28.7	33.0	16.3	26.4	46.3	53.8	1.3	1.7	0.6	5.2	3.1	5.0	N/A	N/A
2015	8.8	31.4	9.5	14.3	33.1	56.3	0.5	1.6	1.7	9.0	10.1	9.0	-	0.1
2018	- ²⁾	-	-	-	50.0	52.0	- ³⁾	-	-	-	- ⁴⁾	-	-	-
2021	- ⁵⁾	-	-	-	46.2	52.5	- ⁶⁾	-	-	-	- ⁷⁾	-	-	-
구분	영유아 교육 전문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종합보습		기타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51.3	6.3	1.0	-	1.5	12.4	-	0.2	0.7	1.9	14.4	6.6	(139)	(238)
2012	22.0	1.0	0.0	0.6	1.3	11.0	N/A	N/A	N/A	N/A	5.0	2.9	(162)	(430)
2015	N/A	N/A	-	2.3	3.5	8.2	-	1.4	N/A	N/A	28.1	9.5	(80)	(430)
2018	-	-	-	-	1.9	13.3	-	-	-	-	18.0	6.4	(107)	(634)
2021	-	-	-	-	12.1	16.9	-	-	-	-	23.5	6.6	(59)	(633)

- 주: 1)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는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2) 2018년 자료에는 미술과 음악 영역을 '예능'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4.3%, 49.8%이다.
 3) 2018년 자료에는 과학과 수학 영역을 '수학/과학 관련'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2.0%, 14.9%이다.
 4) 2018년 자료에는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영역을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와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9%, 16.4%이다.
 5) 2021년 자료에는 미술과 음악 영역을 '예능'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39.2%, 48.7%이다.
 6) 2021년 자료에는 과학과 수학 영역을 '수학/과학 관련'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4%, 18.2%이다.
 7) 2021년 자료에는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영역을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와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20.0%, 23.4%이다.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4. <표 VII-2-5>.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52. <표 X-2-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7. <표 X-2-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53-554. <표 X-2-2>.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06-507. <표 X-2-2>.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⁵⁾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2.1%의 미취학 아동이 개별교육을 이용했으며, 이 비율은 2009년에는 26.3%, 2012년에는 33.8%까지 증가했다. 그 후 2015년에는 16.6%, 2018년에는 19.6%, 2021년에는 18.2%로 소폭 감소하면서 시간제학원 이용 현황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표 III-2-5>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개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2004	97.9	1.8	0.3	-	-	-	100.0(2,962)
2009	73.7	24.8	1.3	0.2	-	-	100.0(3,303)
2012	66.2	15.5	13.5	3.6	0.6	0.5	100.0(3,343)
2015	83.4	9.1	5.5	1.4	0.5	0.1	100.0(3,560)
2018	80.4	10.6	6.5	1.6	0.6	0.3	100.0(3,775)
2021	81.8	12.0	4.1	1.5	0.4	0.2	100.0(3,471)

- 자료: 1)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①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50. <표 7-3-1>.
 2)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03. <표 VII-3-3>.
 3)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2. <표 X-3-3>.
 4)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6. <표 X-3-3>.
 5)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4-565. <표 X-3-3>.
 6)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18. <표 X-3-3>.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학습지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재교구활용 개별교육이 높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대부분의 개별교육 이용이 2018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문형태의 학습지나 교재교구활용 개별교육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1). 반면 2021년에는 유아의 통신교육 이

5) 개별교육은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그룹 교육, 학습지와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말함.

용이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유아의 통신교육 이용은 2012년(0.4%)에 처음 집계된 이후 2015년 (1.3%), 2018년(2.0%), 2021년(3.3%)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용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2-6〉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66.6	94.4	0.6	2.3	35.7	9.0	N/A	N/A	(139)	(734)
2012	75.1	95.3	0.5	1.7	35.0	8.9	0.5	0.4	(206)	(851)
2015	68.0	86.5	1.5	9.5	32.3	10.5	2.8	1.3	(62)	(459)
2018	56.0	86.2	N/A	N/A	36.1	9.0	3.2	2.0	(63)	(635)
2021	2.1	18.2	N/A	N/A	1.4	4.0	0.3	3.3	(44)	(554)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는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08. 〈표 VII-3-9〉.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1. 〈표 X-3-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5. 〈표 X-3-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3-564. 〈표 X-3-2〉.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17. 〈표 X-3-2〉.

사교육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사교육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2세의 경우, 2016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1.45세 때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고, 2024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1.01세 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시작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2세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시작 연령이 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2016년 3.55세, 2024년 3.14세).

〈표 III-2-7〉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세반

구분		만0세반 경험	만1세반 경험	만2세반 경험	만3세반 경험	만4세반 경험	만5세반 경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2세	2016	11.97	31.34	56.69	-	-	-	100.00(284)	1.45	0.70	7.19***
	2024	32.96	33.24	33.80	-	-	-	100.00(358)	1.01	0.82	

구분		만0세반 경험	만1세반 경험	만2세반 경험	만3세반 경험	만4세반 경험	만5세반 경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i>t</i>
5세	2016	2.56	7.52	11.52	19.84	28.16	32.33	100.00(625)	3.55	1.36	4.56***
	2024	9.39	7.64	11.14	26.42	22.71	22.71	100.00(458)	3.14	1.54	

주: “만n세반 경험”이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사교육 비용 변화 및 추이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총 월평균 금액과 사교육 유형별 월평균 금액을 나누어 2016년, 2024년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2세의 경우, 2016년 총 월평균 금액은 약 12만 7천원이고, 이 중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은 약 9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의 월평균 금액은 약 9만 7천원 수준이었다, 2024년 2세의 총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약 13만 7천원이고, 이 중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은 약 12만 2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의 월평균 금액은 약 10만 5천원 수준이었다, 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2016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5세의 월간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사교육 비용은 약 16만 5천원이었고, 이 중 학습 관련 사교육은 약 9만 8천원, 예체능/기타 사교육의 비용이 약 12만 4천원이었다. 2024년 5세의 총 사교육 비용이 약 23만 7천원,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은 약 18만 4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은 약 16만 5천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5세에 비해 2024년 5세의 전체 사교육 비용,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비용 모두 대폭 증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지난 8년간 19.2%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다시 살펴보았다⁶⁾.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2세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약 1만 1천원(9.9%) 증가한 반면, 총사교육비는 약 1만 4천원(10.2%) 감소하고, 예체능/기타 사교육비는 약 1만 1천원(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는 총사교육비는 약 4만원(20.3%),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약 6만 7천원(57.3%), 예체능/기타 사교육비는 약 2만 3천원(11.5%)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세는 사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5세는 증가한 가운데,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증가하였고, 특히 5

6) 본 단락의 이하 수치는 8년간의 19.2%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세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월간 사교육 비용: 2016년 VS. 2024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단위: (명), 천원
구분		(수)	평균	표준 편차	t	(수)	평균	표준 편차	t	(수)	평균	표준 편차	t	
2세	2016	(221)	127.05	123.18	-0.76	(171)	93.08	91.97	-2.37*	(127)	96.99	85.54	-0.72	
	2024	(255)	136.92	137.06		(145)	121.79	119.79		(165)	104.57	92.08		
5세	2016	(574)	165.05	118.62	-6.70***	(459)	98.05	77.21	-8.56***	(404)	124.41	77.95	-5.98**	
	2024	(421)	237.33	194.04		(271)	184.36	155.04		(302)	165.41	98.80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에 대해 연도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학원비용에는 교재비와 반일제학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2세의 경우 응답사례수가 2016년 30명, 2024년 12명으로 매우 적고, 응답값의 편차가 커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2세는 월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00%로 주를 이뤘으며,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평균 약 31만 4천원이었다. 반면 2024년의 2세는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이 평균 197만 5천원으로 2016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세의 경우도 2세와 마찬가지로 2016년과 비교 시 2024년 비용 상승폭이 매우 큰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용은 평균 약 60만 2천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168만 7천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9〉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16년 VS. 2024년

		100만원 미만						100 ~150 만원		150 ~200 만원		200 ~250 만원		250 ~350 만원		3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단위: %(명), 천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 ~150 만원	150 ~200 만원	200 ~250 만원	250 ~350 만원	3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2세	2016	90.00	10.00	-	-	-	-	100.00(30)	314.07	333.87	-4.59**												
	2024	8.33	25.00	25.00	8.33	25.00	8.33	100.00(12)	1975.00	1234.45													
5세	2016	81.43	17.14	-	1.43	-	-	100.00(70)	602.47	394.51	-7.98***												
	2024	15.38	11.54	34.62	26.92	7.69	3.85	100.00(26)	1686.54	650.32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월간 총 이용비용 분포와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2009년(49.1%)과 2012년(44.7%)에는 개별교육 이용 가구의 월 이용비용이 5만 원 미만에 집중되었다. 이후 2015년(45.5%)부터는 5-10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되어, 2018년(35.8%)과 2021년(31.0%)까지도 5-10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개별교육에 1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2009년(16.0%)부터 2012년 (16.6%), 2015년(20.8%), 2018년(34.9%), 2021년(48.8%)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월간 총 10만원 이상을 개별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2009년 64,100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65,900원, 2015년에는 75,900원, 2018년에는 93,000원, 2021년에는 108,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학원과 더불어 개별 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10〉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이용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2009	49.1	34.9	10.2	3.3	1.7	0.8	100.0(871)	64.1
2012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9
2015	33.7	45.5	11.2	5.3	3.4	0.9	100.0(521)	75.9
2018	29.4	35.8	20.2	7.6	4.4	2.7	100.0(698)	93.0
2021	20.2	31.0	28.3	9.0	7.2	4.3	100.0(598)	108.7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는 영유아를 합산한 개별교육 이용비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기획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13. 〈표 VII-3-15〉.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5. 〈표 X-3-6〉.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78-379. 〈표 X-3-6〉.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6-567. 〈표 X-3-5〉.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21-522. 〈표 X-3-6〉.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가. 사교육 선택 이유

한 번이라도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을 알아본 결과,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8.25%로 가장 높았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7.11%,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6.60%,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71%,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단위: %, (명)
전체	7.11	78.25	1.96	6.60	3.71	2.37	100.00(970)
자녀 성별							
남	6.20	79.96	2.07	5.79	3.51	2.48	100.00(484)
여	8.02	76.54	1.85	7.41	3.91	2.26	100.00(486)
$\chi^2(df)$			2.673(5)				
자녀 연령							
만2세	5.24	77.62	2.10	7.69	4.90	2.45	100.00(286)
만3세	7.35	75.40	2.24	8.63	3.83	2.56	100.00(313)
만5세	8.36	81.13	1.62	4.04	2.70	2.16	100.00(371)
$\chi^2(df)$			11.728(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70	77.97	2.03	5.80	2.90	2.61	100.00(345)
어린이집	6.04	78.33	1.78	7.46	4.09	2.31	100.00(563)
반일제학원	6.25	79.17	4.17	4.17	6.25	0.00	100.00(48)
가정양육	14.29	78.57	0.00	0.00	0.00	7.14	100.00(14)
$\chi^2(df)$			11.849(15)(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25	78.35	2.06	7.22	2.06	2.06	100.00(97)
전문대졸	9.09	76.08	3.35	6.70	3.35	1.44	100.00(209)
4년제대졸	5.55	79.79	1.79	6.26	4.47	2.15	100.00(559)
대학원졸 이상	10.48	74.29	0.00	7.62	1.90	5.71	100.00(105)
$\chi^2(df)$			18.419(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80	82.61	0.72	6.52	2.90	1.45	100.00(138)
전문대졸	8.24	76.92	3.30	5.49	3.85	2.20	100.00(182)
4년제대졸	7.13	78.42	2.06	6.75	3.56	2.06	100.00(533)
대학원졸 이상	7.69	74.04	0.96	7.69	4.81	4.81	100.00(104)
$\chi^2(df)$			9.137(15)(b)				
맞벌이 여부							
외벌이	6.08	80.07	1.01	8.45	1.01	3.38	100.00(296)
맞벌이	7.60	77.65	2.38	5.51	4.92	1.94	100.00(671)
미취업	0.00	33.33	0.00	66.67	0.00	0.00	100.00(3)
$\chi^2(df)$			33.392(10)***(b)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8.97	78.63	1.85	5.54	3.69	1.32	100.00(379)
중소도시	5.56	78.22	2.44	7.56	3.56	2.67	100.00(450)
읍면	7.09	77.30	0.71	6.38	4.26	4.26	100.00(141)
$\chi^2(df)$			10.552(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41	75.64	3.85	8.97	2.56	2.56	100.00(78)
300 이상~500만원	6.29	83.02	0.94	6.60	1.26	1.89	100.00(318)
500 이상~700만원	7.35	75.29	2.06	7.06	5.29	2.94	100.00(340)
700만원 이상	8.12	76.92	2.56	5.13	5.13	2.14	100.00(234)
$\chi^2(df)$			17.075(15)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한 번이라도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학습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03%로 가장 높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16.14%,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4.11%,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02%,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16% 순으로 학습 사교육 응답 결과와 응답분포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순위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는 여아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높았고, 여아의 경우는 재능 탐색을 목적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남아에 비해 높았다.

〈표 III-3-2〉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단위: %, (명)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전체	14.11	59.03	1.16	16.14	5.02	4.54	100.00(1,035)
자녀 성별							
남	12.35	59.72	1.21	19.03	4.86	2.83	100.00(494)
여	15.71	58.41	1.11	13.49	5.18	6.10	100.00(541)
$\chi^2(df)$			13.189(5)*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자녀 연령							
만2세	10.06	67.86	0.65	15.58	3.90	1.95	100.00(308)
만3세	14.02	57.01	2.44	15.55	5.79	5.18	100.00(328)
만5세	17.29	53.88	0.50	17.04	5.26	6.02	100.00(399)
$\chi^2(df)$				27.645(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6.45	58.49	1.04	14.62	4.96	4.44	100.00(383)
어린이집	13.03	58.88	1.02	17.09	5.08	4.91	100.00(591)
반일제학원	10.20	67.35	2.04	12.24	6.12	2.04	100.00(49)
가정양육	8.33	50.00	8.33	33.33	0.00	0.00	100.00(12)
$\chi^2(df)$				15.021(15)(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43	56.70	2.06	18.56	4.12	4.12	100.00(97)
전문대졸	18.87	57.55	1.89	14.62	4.25	2.83	100.00(212)
4년제대졸	12.13	60.82	0.66	15.57	5.90	4.92	100.00(610)
대학원졸 이상	15.52	54.31	1.72	19.83	2.59	6.03	100.00(116)
$\chi^2(df)$				16.141(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79	55.17	1.38	20.69	4.14	4.83	100.00(145)
전문대졸	16.00	61.50	0.50	14.00	3.50	4.50	100.00(200)
4년제대졸	13.35	59.61	1.25	15.30	6.05	4.45	100.00(562)
대학원졸 이상	14.78	57.39	1.74	17.39	3.48	5.22	100.00(115)
$\chi^2(df)$				8.435(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11.99	66.08	0.88	13.74	1.17	6.14	100.00(342)
맞벌이	15.22	55.51	1.30	17.25	6.96	3.77	100.00(690)
미취업	0.00	66.67	0.00	33.33	0.00	0.00	100.00(3)
$\chi^2(df)$				27.525(10)**(b)			
지역 규모							
대도시	14.49	59.18	1.21	16.67	4.83	3.62	100.00(414)
중소도시	13.67	60.74	0.87	14.75	4.77	5.21	100.00(461)
읍면	14.38	53.75	1.88	18.75	6.25	5.00	100.00(160)
$\chi^2(df)$				5.311(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41	61.54	1.28	20.51	5.13	5.13	100.00(78)
300 이상~500만원	15.08	60.34	1.40	13.97	3.35	5.87	100.00(358)
500 이상~700만원	13.20	57.58	0.56	18.26	6.46	3.93	100.00(356)
700만원 이상	16.46	58.44	1.65	14.81	5.35	3.29	100.00(243)
$\chi^2(df)$				16.085(15)(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 2세의 경우,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그리고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둘 다 26.67%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닌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20.00%로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 2세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이 33.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응답자가 12명 소수에 불과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016년 조사 5세의 경우는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을 위해 보낸다는 응답이 25.71%,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86%,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 18.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의 5세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3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내는 이유로 자녀 연령과 조사연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초등 학습 준비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능 개발	기타	계(수)
2세	2016	10.00	26.67	20.00	16.67	26.67	-	100.00(30)
	2024	8.33	33.33	16.67	16.67	16.67	8.33	100.00(12)
5세	2016	12.86	17.14	18.57	22.86	25.71	2.86	100.00(70)
	2024	11.54	30.77	7.69	30.77	15.38	3.85	100.00(26)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2.08%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낸다고 하였다. 그 뒤를 이어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28.30%,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 18.8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II-3-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24년

구분	초등 학습 준비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질·재 능 개발	기타	단위: %, (명)
			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계(수)
전체	7.55	28.30	7.55	32.08	18.87	5.66	100.00(53)
자녀 성별							
남	3.70	25.93	14.81	25.93	18.52	11.11	100.00(27)
여	11.54	30.77	0.00	38.46	19.23	0.00	100.00(26)
$\chi^2(df)$				8.580(5)(b)			
자녀 연령							
만2세	8.33	33.33	16.67	16.67	16.67	8.33	100.00(12)
만3세	0.00	20.00	0.00	46.67	26.67	6.67	100.00(15)
만5세	11.54	30.77	7.69	30.77	15.38	3.85	100.00(26)
$\chi^2(df)$				7.583(10)(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100.00	0.00	0.00	0.00	0.00	100.00(1)
전문대졸	0.00	0.00	0.00	33.33	50.00	16.67	100.00(6)
4년제대졸	11.43	22.86	8.57	37.14	17.14	2.86	100.00(35)
대학원졸 이상	0.00	54.55	9.09	18.18	9.09	9.09	100.00(11)
$\chi^2(df)$				16.431(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33.33	0.00	33.33	33.33	0.00	100.00(3)
전문대졸	0.00	42.86	0.00	42.86	14.29	0.00	100.00(7)
4년제대졸	3.57	21.43	10.71	32.14	21.43	10.71	100.00(28)
대학원졸 이상	20.00	33.33	6.67	26.67	13.33	0.00	100.00(15)
$\chi^2(df)$				10.540(15)(b)			
맞벌이 여부							
외벌이	6.25	12.50	6.25	37.50	31.25	6.25	100.00(16)
맞벌이	8.11	35.14	8.11	29.73	13.51	5.41	100.00(37)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chi^2(df)$				4.211(5)(b)			
지역 규모							
대도시	12.90	25.81	6.45	32.26	12.90	9.68	100.00(31)
중소도시	0.00	27.78	5.56	38.89	27.78	0.00	100.00(18)
읍면	0.00	50.00	25.00	0.00	25.00	0.00	100.00(4)
$\chi^2(df)$				10.427(10)(b)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0.00	0.00	50.00	50.00	0.00	100.00(2)
300 이상~500만원	0.00	20.00	0.00	60.00	20.00	0.00	100.00(5)
500 이상~700만원	5.56	44.44	5.56	22.22	22.22	0.00	100.00(18)
700만원 이상	10.71	21.43	10.71	32.14	14.29	10.71	100.00(28)
$\chi^2(df)$				10.892(15)(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나. 사교육 만족도 및 지속 의향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3.28%(만족하는 편 60.22%+매우 만족 33.06%)이었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26점 정도이다. 자녀특성이나 가구특성별 배경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5〉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4	6.18	60.22	33.06	100.00(744)	3.26	0.59
자녀 성별							
남	0.26	4.76	60.32	34.66	100.00(378)	3.29	0.57
여	0.82	7.65	60.11	31.42	100.00(366)	3.22	0.61
$\chi^2(df)/t$		4.165(3)(b)				1.7	
자녀 연령							
만2세	1.58	5.79	58.42	34.21	100.00(190)	3.25	0.63
만3세	0.00	5.96	61.28	32.77	100.00(235)	3.27	0.56
만5세	0.31	6.58	60.50	32.60	100.00(319)	3.25	0.58
$\chi^2(df)/F$		5.795(6)(b)				0.1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00	5.94	59.09	34.97	100.00(286)	3.29	0.57
어린이집	0.73	6.55	60.19	32.52	100.00(412)	3.25	0.60
반일제학원	0.00	2.78	69.44	27.78	100.00(36)	3.25	0.50
가정양육	10.00	10.00	60.00	20.00	100.00(10)	2.90	0.88
$\chi^2(df)/F$		21.430(9)*(b)				1.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6	10.94	56.25	31.25	100.00(64)	3.17	0.68
전문대졸	1.27	5.73	64.97	28.03	100.00(157)	3.20	0.59
4년제대졸	0.23	5.68	59.09	35.00	100.00(440)	3.29	0.58
대학원졸 이상	0.00	6.02	60.24	33.73	100.00(83)	3.28	0.57
$\chi^2(df)/F$		9.269(9)(b)				1.4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6	10.53	58.95	27.37	100.00(95)	3.11	0.71
전문대졸	0.00	9.22	51.06	39.72	100.00(141)	3.30	0.63
4년제대졸	0.24	4.53	64.92	30.31	100.00(419)	3.25	0.54
대학원졸 이상	0.00	4.94	54.32	40.74	100.00(81)	3.36	0.58
$\chi^2(df)/F$		30.064(9)***(b)				2.5(w)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0.45	6.82	56.82	35.91	100.00(220)	3.28	0.61
맞벌이	0.57	5.93	61.57	31.93	100.00(523)	3.25	0.58
미취업	0.00	0.00	100.00	0.00	100.00(1)	3.00	0.00
$\chi^2(df)/F$			2.223(6)(b)				0.3
지역 규모							
대도시	0.65	4.55	58.12	36.69	100.00(308)	3.31	0.59
중소도시	0.59	7.33	63.34	28.74	100.00(341)	3.20	0.59
읍면	0.00	7.37	55.79	36.84	100.00(95)	3.29	0.60
$\chi^2(df)/F$			7.528(6)(b)				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9	3.77	54.72	39.62	100.00(53)	3.32	0.64
300 이상~500만원	0.42	8.86	56.96	33.76	100.00(237)	3.24	0.62
500 이상~700만원	0.38	4.55	62.88	32.20	100.00(264)	3.27	0.56
700만원 이상	0.53	5.79	62.11	31.58	100.00(190)	3.25	0.58
$\chi^2(df)/F$			8.433(9)(b)				0.3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이어서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95.81%(만족하는 편 47.12%+매우 만족 48.69%)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44점 정도이다. 이는 학습 관련 사교육 만족도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학습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녀특성이나 가구특성별 배경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6〉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6	3.93	47.12	48.69	100.00(764)	3.44	0.58
자녀 성별							
남	0.55	4.14	47.51	47.79	100.00(362)	3.43	0.60
여	0.00	3.73	46.77	49.50	100.00(402)	3.46	0.57
$\chi^2(df)/t$			2.441(3)(b)				-0.8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만2세	0.00	5.13	48.21	46.67	100.00(195)	3.42	0.59
만3세	0.43	4.68	48.94	45.96	100.00(235)	3.40	0.60
만5세	0.30	2.69	45.21	51.80	100.00(334)	3.49	0.57
$\chi^2(df)/F$			4.776(6)(b)				1.6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32	2.24	47.12	50.32	100.00(312)	3.47	0.56
어린이집	0.00	5.68	47.41	46.91	100.00(405)	3.41	0.60
반일제학원	2.56	0.00	46.15	51.28	100.00(39)	3.46	0.64
가정양육	0.00	0.00	37.50	62.50	100.00(8)	3.63	0.52
$\chi^2(df)/F$			17.255(9)*(b)				0.9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5.97	44.78	49.25	100.00(67)	3.43	0.61
전문대졸	0.00	4.64	43.05	52.32	100.00(151)	3.48	0.59
4년제대졸	0.44	3.53	49.89	46.14	100.00(453)	3.42	0.58
대학원졸 이상	0.00	3.23	41.94	54.84	100.00(93)	3.52	0.56
$\chi^2(df)/F$			6.194(9)(b)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4.08	38.78	57.14	100.00(98)	3.53	0.58
전문대졸	0.00	3.45	48.97	47.59	100.00(145)	3.44	0.56
4년제대졸	0.24	4.26	48.70	46.81	100.00(423)	3.42	0.59
대학원졸 이상	1.11	3.33	45.56	50.00	100.00(90)	3.44	0.62
$\chi^2(df)/F$			7.014(9)(b)				0.9
맞벌이 여부							
외벌이	0.39	2.73	44.14	52.73	100.00(256)	3.49	0.57
맞벌이	0.20	4.54	48.52	46.75	100.00(507)	3.42	0.59
미취업	0.00	0.00	100.00	0.00	100.00(1)	3.00	0.00
$\chi^2(df)/F$			4.719(6)(b)				1.7
지역 규모							
대도시	0.00	4.04	47.83	48.14	100.00(322)	3.44	0.57
중소도시	0.30	3.66	46.65	49.39	100.00(328)	3.45	0.58
읍면	0.88	4.39	46.49	48.25	100.00(114)	3.42	0.62
$\chi^2(df)/F$			2.764(6)(b)				0.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2.13	53.19	44.68	100.00(47)	3.43	0.54
300 이상~500만원	0.37	4.85	41.79	52.99	100.00(268)	3.47	0.61
500 이상~700만원	0.38	3.46	48.46	47.69	100.00(260)	3.43	0.58
700만원 이상	0.00	3.70	51.32	44.97	100.00(189)	3.41	0.56
$\chi^2(df)/F$			6.582(9)(b)				0.5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16년 2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4점 만점에서 평균 2.90점을, 2024년 2세의 경우는 동일하게 4점 만점에서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세의 경우도 유사하게 2016년 3.15점에서, 2024년 3.50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표 III-3-7〉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t
							평균	표준편차	
2세	2016	-	-	-	-	100.00(30)	2.90	0.49	-1.68
	2024	0.00	0.00	83.33	16.67	100.00(12)	3.17	0.39	
5세	2016	-	-	-	-	100.00(70)	3.15	0.48	-2.73**
	2024	0.00	3.85	42.31	53.85	100.00(26)	3.50	0.58	

주: 1)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2) 2016년에는 1) 비용, 2) 프로그램 내용, 3) 교재, 4) 강사, 5) 집단구성, 6) 시설 6개 항목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2024년에서는 전반적 만족도 1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음. 2016년 만족도 전체 점수는 6개 항목의 합산을 항목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음.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8점이었고, 만족하는 편 58.49%,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39.62%로,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가정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자녀의 성별, 연령이나 가구특성별 집단 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8〉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24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0	1.89	58.49	39.62	100.00(53)	3.38	0.53	
자녀 성별								
남	0.00	3.70	55.56	40.74	100.00(27)	3.37	0.56	
여	0.00	0.00	61.54	38.46	100.00(26)	3.38	0.50	
$\chi^2(df)/t$			1.061(2)(b)					-0.1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만2세	0.00	0.00	83.33	16.67	100.00(12)	3.17	0.39
만3세	0.00	0.00	66.67	33.33	100.00(15)	3.33	0.49
만5세	0.00	3.85	42.31	53.85	100.00(26)	3.50	0.58
$\chi^2(df)/F$			6.713(4)(b)				1.8(a)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0.00	100.00	0.00	100.00(1)	3.00	0.00
전문대졸	0.00	0.00	50.00	50.00	100.00(6)	3.50	0.55
4년제대졸	0.00	0.00	62.86	37.14	100.00(35)	3.37	0.49
대학원졸 이상	0.00	9.09	45.45	45.45	100.00(11)	3.36	0.67
$\chi^2(df)/F$			5.328(6)(b)				0.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0.00	66.67	33.33	100.00(3)	3.33	0.58
전문대졸	0.00	14.29	42.86	42.86	100.00(7)	3.29	0.76
4년제대졸	0.00	0.00	57.14	42.86	100.00(28)	3.43	0.50
대학원졸 이상	0.00	0.00	66.67	33.33	100.00(15)	3.33	0.49
$\chi^2(df)/F$			7.350(6)(b)				0.2
맞벌이 여부							
외벌이	0.00	0.00	50.00	50.00	100.00(16)	3.50	0.52
맞벌이	0.00	2.70	62.16	35.14	100.00(37)	3.32	0.53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chi^2(df)/F$			1.338(2)(b)				1.2
지역 규모							
대도시	0.00	0.00	51.61	48.39	100.00(31)	3.48	0.51
중소도시	0.00	0.00	72.22	27.78	100.00(18)	3.28	0.46
읍면	0.00	25.00	50.00	25.00	100.00(4)	3.00	0.82
$\chi^2(df)/F$			14.584(4)**(b)				2.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0.00	50.00	50.00	100.00(2)	3.50	0.71
300 이상~500만원	0.00	0.00	60.00	40.00	100.00(5)	3.40	0.55
500 이상~700만원	0.00	5.56	61.11	33.33	100.00(18)	3.28	0.57
700만원 이상	0.00	0.00	57.14	42.86	100.00(28)	3.43	0.50
$\chi^2(df)/F$			2.309(6)(b)				0.3

주: 1)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79.00%가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

면,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 7.2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3.80%나 되었다. 자녀 연령과 가구소득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다.

〈표 III-3-9〉 사교육을 지속할 의향: 2024년

단위 : %, (명)

구분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 있음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79.00	7.20	13.80	100.00(1,500)
자녀 성별				
남	79.22	7.14	13.64	100.00(770)
여	78.77	7.26	13.97	100.00(730)
$\chi^2(df)$		0.048(2)		
자녀 연령				
만2세	75.00	9.20	15.80	100.00(500)
만3세	77.60	7.20	15.20	100.00(500)
만5세	84.40	5.20	10.40	100.00(500)
$\chi^2(df)$		14.886(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4.02	5.13	10.85	100.00(507)
어린이집	76.15	8.13	15.71	100.00(910)
반일제학원	86.79	5.66	7.55	100.00(53)
가정양육	66.67	16.67	16.67	100.00(30)
$\chi^2(df)$		18.864(6)**(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32	8.23	16.46	100.00(158)
전문대졸	78.77	6.46	14.77	100.00(325)
4년제대졸	78.55	7.50	13.96	100.00(867)
대학원졸 이상	86.00	6.00	8.00	100.00(150)
$\chi^2(df)$		6.811(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55	7.86	16.59	100.00(229)
전문대졸	78.89	6.23	14.88	100.00(289)
4년제대졸	80.20	7.10	12.70	100.00(803)
대학원졸 이상	77.71	8.92	13.38	100.00(157)
$\chi^2(df)$		3.948(6)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82	7.98	14.20	100.00(514)
맞벌이	79.61	6.83	13.56	100.00(981)
미취업	80.00	0.00	20.00	100.00(5)
$\chi^2(df)$		1.356(4)(b)		

구분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 있음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77.26	7.29	15.45	100.00(576)
중소도시	80.85	6.87	12.28	100.00(684)
읍면	77.92	7.92	14.17	100.00(240)
$\chi^2(df)$		3.139(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8.25	13.49	18.25	100.00(126)
300 이상~500만원	75.00	9.49	15.51	100.00(548)
500 이상~700만원	82.32	3.93	13.75	100.00(509)
700만원 이상	84.86	5.99	9.15	100.00(317)
$\chi^2(df)$		32.103(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앞선 문항에서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경우에 한해, 하고 싶은 사교육 유형을 추가 질문한 결과,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83.46%이고,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93.84%로 학습 관련 사교육 보다 다소 높았다. 기타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도 27.34%로 나타났고, 여기서의 기타 사교육은 인성교육, 다도, 요리 등을 의미한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기타 사교육을 지속하거나 새로 시킬 의향이 높았다. 또한 반일제학원에 다니는 경우, 기타 사교육을 지속하거나 새로 시킬 의향이 특히 높았고, 가정양육과 유치원의 경우 다소 낮았다.

〈표 III-3-10〉 지속할 의향이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2024년

단위 : %, (명)

구분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관련 사교육			기타 사교육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전체	83.46	16.54	100(1,185)	93.84	6.16	100(1,185)	27.34	72.66	100(1,185)
자녀 성별									
남	84.59	15.41	100(610)	92.62	7.38	100(610)	27.05	72.95	100(610)
여	82.26	17.74	100(575)	95.13	4.87	100(575)	27.65	72.35	100(575)
$\chi^2(df)$	1.163(1)			3.219(1)			0.054(1)		

구분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관련 사교육			기타 사교육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자녀 연령									
만2세	82.93	17.07	100(375)	94.93	5.07	100(375)	33.87	66.13	100(375)
만3세	81.70	18.30	100(388)	93.04	6.96	100(388)	27.06	72.94	100(388)
만5세	85.55	14.45	100(422)	93.60	6.40	100(422)	21.80	78.20	100(422)
$\chi^2(df)$			2.274(2)			1.245(2)			14.573(2)**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3.10	16.90	100(426)	93.43	6.57	100(426)	22.77	77.23	100(426)
어린이집	82.83	17.17	100(693)	93.94	6.06	100(693)	29.87	70.13	100(693)
반일제학원	91.30	8.70	100(46)	93.48	6.52	100(46)	34.78	65.22	100(46)
가정양육	95.00	5.00	100(20)	100.00	0.00	100(20)	20.00	80.00	100(20)
$\chi^2(df)$			4.221(3)			1.461(3)(b)			8.537(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2.35	17.65	100(119)	92.44	7.56	100(119)	31.09	68.91	100(119)
전문대졸	85.94	14.06	100(256)	94.14	5.86	100(256)	23.83	76.17	100(256)
4년제대졸	82.97	17.03	100(681)	93.98	6.02	100(681)	27.31	72.69	100(681)
대학원졸 이상	82.17	17.83	100(129)	93.80	6.20	100(129)	31.01	68.99	100(129)
$\chi^2(df)$			1.520(3)			0.469(3)			3.307(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81.50	18.50	100(173)	96.53	3.47	100(173)	28.32	71.68	100(173)
전문대졸	85.96	14.04	100(228)	92.98	7.02	100(228)	23.25	76.75	100(228)
4년제대졸	82.61	17.39	100(644)	93.94	6.06	100(644)	28.88	71.12	100(644)
대학원졸 이상	87.70	12.30	100(122)	90.98	9.02	100(122)	24.59	75.41	100(122)
$\chi^2(df)$			3.451(3)			4.186(3)			3.245(3)
맞벌이 여부									
외별이	79.75	20.25	100(400)	95.00	5.00	100(400)	27.00	73.00	100(400)
맞벌이	85.40	14.60	100(781)	93.21	6.79	100(781)	27.53	72.47	100(781)
미취업	75.00	25.00	100(4)	100.00	0.00	100(4)	25.00	75.00	100(4)
$\chi^2(df)$			6.332(2)*(b)			1.723(2)(b)			0.048(2)(b)
지역 규모									
대도시	84.27	15.73	100(445)	93.93	6.07	100(445)	28.54	71.46	100(445)
중소도시	84.63	15.37	100(553)	94.21	5.79	100(553)	27.85	72.15	100(553)
읍면	78.07	21.93	100(187)	92.51	7.49	100(187)	22.99	77.01	100(187)
$\chi^2(df)$			4.687(2)			0.709(2)			2.171(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0.23	19.77	100(86)	93.02	6.98	100(86)	32.56	67.44	100(86)
300 이상~500만원	80.54	19.46	100(411)	93.19	6.81	100(411)	26.76	73.24	100(411)
500 이상~700만원	84.73	15.27	100(419)	94.27	5.73	100(419)	26.49	73.51	100(419)
700만원 이상	86.99	13.01	100(269)	94.42	5.58	100(269)	27.88	72.12	100(269)
$\chi^2(df)$			6.108(3)			0.696(3)			1.439(3)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학부모가 사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 자녀의 연령과 조사연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만2세 아동 부모의 경우 2016년에는 58.29%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지만, 2024년에는 이 비율이 41.80%로 감소했다. 반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24.02%에서 45.08%로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2016년에 10.99%였지만, 2024년에는 5.80%로 줄어들었으며,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6.33%에서 6.40%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만5세 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16년에는 56.96%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5.80%로 줄어들었다. 대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호는 26.99%에서 53.20%로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2016년에 8.95%였으나, 2024년에는 4.20%로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연령별 분석을 보면, 만2세 아동 부모의 경우 41.80%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45.80%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선호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5.80%였고,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를 원하는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만5세 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35.80%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53.20%가 인프라 구축을 선호했으며,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4.20%,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6.60%였다.

종합적으로,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2016년에서 2024년으로 갈수록 감소한 반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으며, 이는 부모들이 초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거나 현실적으로 사교육 축소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 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에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3-11〉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	사교육 부정적 영향 홍보를 통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수)
2세	2016	58.29	24.02	10.99	6.33	0.37	100.00(537)
	2024	41.80	45.80	5.80	6.40	0.20	100.00(500)
5세	2016	56.96	26.99	8.95	6.11	0.99	100.00(704)
	2024	35.80	53.20	4.20	6.60	0.20	100.00(500)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를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재원 기관, 부모의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히, 재원기관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48.52%)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42.41%)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부모는 인프라 구축(49.89%)을 더 선호했으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38.68%였다.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47.17%)을 더 선호했고,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26.42%였다. 한편,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50.00%)를 가장 선호했고, 인프라 구축은 43.33%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를 보면,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33.33%)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50.79%)를 더 선호했다.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9.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300만원 이상~500만원 소득 그룹은 인프라 구축(51.28%)을 가장 선호했으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41.79%로 나타났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3.4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00만원 이상~700만원 소득 그룹도 인프라 구축(48.92%)을 선호했고,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39.69%였다. 마지막으로 700만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인프라 구축(45.43%)이 가장 높았지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다른 소득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9.78%로 나타났다.

〈표 III-3-12〉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24년

단위: %, (명)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정적 영향 사교육 요구 흡수					기타 사교육 축소	계(수)
		사교육 유지 홍보를 통한 및 활성화						
전체		39.73	49.20	5.20	5.67	0.20	100.00(1,500)	
자녀 성별								
남		40.52	48.83	5.06	5.45	0.13	100.00(770)	
여		38.90	49.59	5.34	5.89	0.27	100.00(730)	
$\chi^2(df)$				0.860(4)(b)				
자녀 연령								
만2세		41.80	45.80	5.80	6.40	0.20	100.00(500)	
만3세		41.60	48.60	5.60	4.00	0.20	100.00(500)	
만5세		35.80	53.20	4.20	6.60	0.20	100.00(500)	
$\chi^2(df)$				10.916(8)(b)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2.41	48.52	3.75	4.93	0.39	100.00(507)	
어린이집		38.68	49.89	5.82	5.49	0.11	100.00(910)	
반일제학원		26.42	47.17	9.43	16.98	0.00	100.00(53)	
가정양육		50.00	43.33	3.33	3.33	0.00	100.00(30)	
$\chi^2(df)$				23.771(12)*(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94	46.84	5.06	3.16	0.00	100.00(158)	
전문대졸		42.15	47.08	4.92	5.54	0.31	100.00(325)	
4년제대학		38.06	50.29	5.31	6.11	0.23	100.00(867)	
대학원졸 이상		38.67	50.00	5.33	6.00	0.00	100.00(150)	
$\chi^2(df)$				5.926(12)(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05	49.34	6.99	2.62	0.00	100.00(229)	
전문대졸		43.25	47.06	4.15	5.19	0.35	100.00(289)	
4년제대학		37.86	50.44	5.48	5.98	0.25	100.00(803)	
대학원졸 이상		40.76	46.50	3.82	8.92	0.00	100.00(157)	
$\chi^2(df)$				13.307(12)(b)				
맞벌이 여부								
외벌이		40.08	49.22	4.67	5.45	0.58	100.00(514)	
맞벌이		39.65	49.03	5.50	5.81	0.00	100.00(981)	
미취업		20.00	80.00	0.00	0.00	0.00	100.00(5)	
$\chi^2(df)$				8.308(8)(b)				
지역 규모								
대도시		39.06	48.09	6.60	6.08	0.17	100.00(576)	
중소도시		42.25	48.10	4.39	5.26	0.00	100.00(684)	
읍면		34.17	55.00	4.17	5.83	0.83	100.00(240)	
$\chi^2(df)$				15.089(8)(b)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정적 영향 사교육 요구 흡수					기타 사교육 총소	계(수)
		사교육 유지 홍보를 통한 및 활성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33	50.79	9.52	5.56	0.79	100.00(126)		
300 이상~500만원	41.79	51.28	3.47	3.28	0.18	100.00(548)		
500 이상~700만원	39.69	48.92	5.70	5.70	0.00	100.00(509)		
700만원 이상	38.80	45.43	5.68	9.78	0.32	100.00(317)		
$\chi^2(df)$			29.908(12)**(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을 연도별 및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아동의 경우 2016년에는 69.71%의 부모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24년에는 57.07%로 감소하였다. 5세 아동의 경우에도 2016년 54.43%에서 2024년 40.63%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표 III-3-13〉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16년 VS. 2024년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2세	2016	69.71	30.29	100.00(340)
	2024	57.07	42.93	100.00(396)
5세	2016	54.43	45.57	100.00(542)
	2024	40.63	59.38	100.00(448)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학력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재원기관, 지역 규모, 가구소득)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모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아 부모의 52.90%가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아 부모는 46.98%만이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2세 아동의 부모 중 57.07%가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3세 아동의 경우 53.17%, 만5세 아동의 경우 40.63%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자녀 재원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가 52.92%로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유치원 재원 아동 부모(45.11%)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나타난 경향일 수 있다.

지역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읍면 거주 가정의 56.65%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중소도시(46.88%)와 대도시(51.0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58.33%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2.32%만이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3-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24년
단위: %, (명)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전체	50.00	50.00	100.00(1,286)
자녀 성별			
남	52.90	47.10	100.00(656)
여	46.98	53.02	100.00(630)
$\chi^2(df)$	4.493(1)*		
자녀 연령			
만2세	57.07	42.93	100.00(396)
만3세	53.17	46.83	100.00(442)
만5세	40.63	59.38	100.00(448)
$\chi^2(df)$	25.443(2)***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5.11	54.89	100.00(481)
어린이집	52.92	47.08	100.00(805)
반일제학원	0.00	0.00	0.00(0)
$\chi^2(df)$	7.337(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2.45	47.55	100.00(143)
전문대졸	51.23	48.77	100.00(285)
4년제대학	49.79	50.21	100.00(731)
대학원졸 이상	45.67	54.33	100.00(127)
$\chi^2(df)$	1.480(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9.51	50.49	100.00(204)
전문대졸	51.38	48.62	100.00(253)
4년제대학	48.61	51.39	100.00(683)
대학원졸 이상	52.76	47.24	100.00(127)
$\chi^2(df)$	1.089(3)		
맞벌이 여부			
외벌이	52.13	47.87	100.00(422)
맞벌이	49.07	50.93	100.00(860)
미취업	25.00	75.00	100.00(4)
$\chi^2(df)$	2.065(2)(b)		
지역 규모			
대도시	51.02	48.98	100.00(490)
중소도시	46.88	53.12	100.00(593)
읍면	56.65	43.35	100.00(203)
$\chi^2(df)$	6.104(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33	41.67	100.00(108)
300 이상~500만원	54.22	45.78	100.00(474)
500 이상~700만원	48.05	51.95	100.00(437)
700만원 이상	42.32	57.68	100.00(267)
$\chi^2(df)$	13.333(3)**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를 연도별, 자녀 연령별

로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60.34%에서 2024년 53.10%로 감소하였고, 2016년 5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38.31%에서 2024년 41.76%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18.57%에서 2024년 15.93%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5세 부모 대상의 응답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3-1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수)
2세	2016	60.34	18.57	10.97	4.22	5.91	100.00(237)
	2024	53.10	15.93	17.70	5.31	7.96	100.00(226)
5세	2016	38.31	30.51	19.66	7.80	3.73	100.00(295)
	2024	41.76	28.57	23.63	4.40	1.65	100.00(182)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024년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하였다. 자녀 성별에 따라 남아 부모는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49.28%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여아 부모는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19.59%)과 '재능·소질 계발 가능'(5.74%) 항목에서 여아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만2세와 만3세 부모가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각각 53.10%와 53.19%로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만5세 부모는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음'을 28.57%로 더 높게 평가했다.

재원기관에 따른 분석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가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51.17%로 유치원 재원 부모(47.47%)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1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단위: %, (명)
전체	49.92	21.77	18.20	4.51	5.60	100.00(643)
자녀 성별						
남	49.28	22.19	17.00	3.46	8.07	100.00(347)
여	50.68	21.28	19.59	5.74	2.70	100.00(296)
$\chi^2(df)$			10.778(4)*			
자녀 연령						
만2세	53.10	15.93	17.70	5.31	7.96	100.00(226)
만3세	53.19	22.13	14.47	3.83	6.38	100.00(235)
만5세	41.76	28.57	23.63	4.40	1.65	100.00(182)
$\chi^2(df)$			23.743(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7.47	27.19	18.43	4.15	2.76	100.00(217)
어린이집	51.17	19.01	18.08	4.69	7.04	100.00(426)
$\chi^2(df)$			9.612(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7.33	18.67	16.00	6.67	1.33	100.00(75)
전문대졸	51.37	20.55	17.12	7.53	3.42	100.00(146)
4년제대졸	48.08	22.53	17.86	3.57	7.97	100.00(364)
대학원졸 이상	48.28	24.14	25.86	0.00	1.72	100.00(58)
$\chi^2(df)$			19.963(12)(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46	21.78	14.85	2.97	5.94	100.00(101)
전문대졸	49.23	23.85	14.62	7.69	4.62	100.00(130)
4년제대졸	50.00	20.48	20.48	3.92	5.12	100.00(332)
대학원졸 이상	47.76	22.39	16.42	4.48	8.96	100.00(67)
$\chi^2(df)$			8.969(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51.82	21.36	19.09	3.64	4.09	100.00(220)
맞벌이	48.82	22.04	17.77	4.98	6.40	100.00(422)
미취업	100.00	0.00	0.00	0.00	0.00	100.00(1)
$\chi^2(df)$			3.385(8)(b)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51.20	19.20	20.40	4.80	4.40	100.00(250)
중소도시	48.92	24.82	17.63	3.60	5.04	100.00(278)
읍면	49.57	20.00	14.78	6.09	9.57	100.00(115)
$\chi^2(df)$			8.93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2.38	19.05	17.46	6.35	4.76	100.00(63)
300 이상~500만원	51.75	23.74	15.95	4.28	4.28	100.00(257)
500 이상~700만원	49.52	17.62	20.48	4.76	7.62	100.00(210)
700만원 이상	45.13	26.55	19.47	3.54	5.31	100.00(113)
$\chi^2(df)$			8.914(12)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연령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만2세의 경우, 2016년에는 ‘부모 선택권이 적음’이 4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은 24.2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피드백 어려움’은 21.36%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이 30.00%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부모 선택권 적음’은 27.65%로 감소하였다. ‘사교육보다 질 낮음’도 18.82%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만5세의 경우, 2016년에는 ‘부모 선택권 적음’이 38.46%로 가장 높았고,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도 37.65%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드백 어려움’은 13.36%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2024년에는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이 37.9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사교육보다 질 낮음’이 16.54%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부모 선택권 적음’은 24.06%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교육보다 질이 낮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17〉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단위: %, (명)
2세	2016	24.27	2.91	41.75	21.36	2.91	6.80	100.00(103)
	2024	30.00	18.82	27.65	20.59	1.76	1.18	100.00(170)
5세	2016	37.65	3.24	38.46	13.36	2.43	4.86	100.00(247)
	2024	37.97	16.54	24.06	16.92	1.50	3.01	100.00(266)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18〉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단위: %, (명)
전체		33.13	16.17	25.19	20.84	1.71	2.95	100.00(643)
자녀 성별	남	34.63	14.89	25.57	20.39	2.59	1.94	100.00(309)
	여	31.74	17.37	24.85	21.26	0.90	3.89	100.00(334)
$\chi^2(df)$		5.854(5)						
자녀 연령	만2세	30.00	18.82	27.65	20.59	1.76	1.18	100.00(170)
	만3세	29.47	13.53	24.64	26.09	1.93	4.35	100.00(207)
만5세	37.97	16.54	24.06	16.92	1.50	3.01		100.00(266)
	$\chi^2(df)$	13.460(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4.09	14.39	26.52	18.56	1.89	4.55	100.00(264)
	어린이집	32.45	17.41	24.27	22.43	1.58	1.85	100.00(379)
$\chi^2(df)$		6.353(5)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수)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88	10.29	26.47	23.53	7.35	1.47	100.00(68)
전문대졸	29.50	16.55	24.46	24.46	0.72	4.32	100.00(139)
4년제대졸	34.06	18.53	23.43	19.62	1.36	3.00	100.00(367)
대학원졸 이상	37.68	8.70	34.78	17.39	0.00	1.45	100.00(69)
$\chi^2(df)$				27.908(15)* ^(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95	10.68	24.27	29.13	0.97	0.00	100.00(103)
전문대졸	26.83	18.70	24.39	20.33	3.25	6.50	100.00(123)
4년제대졸	35.33	15.95	25.07	19.66	1.71	2.28	100.00(351)
대학원졸 이상	30.00	21.67	30.00	15.00	0.00	3.33	100.00(60)
$\chi^2(df)$				23.297(15) ^(b)			
맞벌이 여부							
외벌이	33.66	12.87	24.26	24.26	1.98	2.97	100.00(202)
맞벌이	32.88	17.58	25.57	19.41	1.60	2.97	100.00(438)
미취업	33.33	33.33	33.33	0.00	0.00	0.00	100.00(3)
$\chi^2(df)$				5.091(10) ^(b)			
지역 규모							
대도시	36.25	15.00	23.75	19.17	2.92	2.92	100.00(240)
중소도시	31.11	18.10	25.08	21.59	0.32	3.81	100.00(315)
읍면	31.82	12.50	29.55	22.73	3.41	0.00	100.00(88)
$\chi^2(df)$				14.694(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7.78	13.33	33.33	11.11	2.22	2.22	100.00(45)
300 이상~500만원	34.10	10.60	23.50	25.81	1.84	4.15	100.00(217)
500 이상~700만원	33.04	16.30	26.43	20.26	1.32	2.64	100.00(227)
700만원 이상	30.52	24.68	23.38	17.53	1.95	1.95	100.00(154)
$\chi^2(df)$				21.249(15) ^(b)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자녀의 성별, 연령, 재원기관, 부모의 학력수준,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의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 성별 및 연령, 맞벌이 여부 등은 부모들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최종학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분석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는 프로그램의 질(44.98%)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고졸 이하 어머니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55.70%)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프로그램의 질(42.59%)을 가장 중시했으며, 고졸 이하 아버지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7.60%)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재원기관별 분석 결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42.80%)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38.46%)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39.78%)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39.78%)을 동등하게 중시했다.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50.94%)을 가장 중시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3.3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역 규모별 분석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41.32%)을 가장 중시했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8.02%)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도시에서도 프로그램의 질(41.67%)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8.16%)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1.25%)이 가장 중시되었고, 프로그램의 질(37.92%)이 그 다음이었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61.1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프로그램의 질(28.57%)이 그 다음이었다. 300~500만원 소득 그룹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0.69%)을 가장 중시했으며, 프로그램의 질(39.23%)이 그 뒤를 이었다. 500~700만원 소득 그룹도 프로그램의 질(42.8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에서는 프로그램의 질(45.74%)이 가장 중시되었으며,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29.97%)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표 III-3-19〉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중요한 고려요소: 2024년

단위: %, (명)

구분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강사 대 영유아 비율	기타	계(수)
전체	7.93	40.93	38.60	11.87	0.67	100.00(1,500)
자녀 성별						
남	8.05	39.61	38.83	13.12	0.39	100.00(770)
여	7.81	42.33	38.36	10.55	0.96	100.00(730)
$\chi^2(df)$			4.632(4)			
자녀 연령						
만2세	9.60	36.00	40.80	12.80	0.80	100.00(500)
만3세	6.80	42.80	40.20	9.60	0.60	100.00(500)
만5세	7.40	44.00	34.80	13.20	0.60	100.00(500)
$\chi^2(df)$			13.597(8)(b)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7.30	42.80	38.46	10.45	0.99	100.00(507)
어린이집	7.69	39.78	39.78	12.42	0.33	100.00(910)
반일제학원	13.21	50.94	22.64	13.21	0.00	100.00(53)
가정양육	16.67	26.67	33.33	16.67	6.67	100.00(30)
$\chi^2(df)$			33.256(12)**(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06	24.68	55.70	12.66	1.90	100.00(158)
전문대졸	5.54	37.85	44.00	11.69	0.92	100.00(325)
4년제대졸	8.42	44.98	35.18	11.30	0.12	100.00(867)
대학원졸 이상	13.33	41.33	28.67	14.67	2.00	100.00(150)
$\chi^2(df)$			58.258(1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7	34.93	47.60	11.79	1.31	100.00(229)
전문대졸	4.15	42.21	41.52	11.07	1.04	100.00(289)
4년제대졸	10.09	42.59	35.49	11.58	0.25	100.00(803)
대학원졸 이상	7.64	40.76	34.39	15.92	1.27	100.00(157)
$\chi^2(df)$			31.916(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9	39.30	41.25	11.09	0.97	100.00(514)
맞벌이	8.15	41.79	37.31	12.23	0.51	100.00(981)
미취업	20.00	40.00	20.00	20.00	0.00	100.00(5)
$\chi^2(df)$			5.254(8)(b)			
지역 규모						
대도시	10.76	41.32	38.02	9.38	0.52	100.00(576)
중소도시	5.26	41.67	38.16	13.89	1.02	100.00(684)
읍면	8.75	37.92	41.25	12.08	0.00	100.00(240)
$\chi^2(df)$			21.801(8)**(b)			

구분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강사 대 영유아 비율	기타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5	28.57	61.11	3.97	0.00	100.00(126)
300 이상~500만원	7.85	39.23	40.69	11.50	0.73	100.00(548)
500 이상~700만원	7.27	42.83	36.15	13.16	0.59	100.00(509)
700만원 이상	9.78	45.74	29.97	13.56	0.95	100.00(317)
$\chi^2(df)$			42.919(12)***(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녀 성별, 연령, 재원기관, 부모의 학력 수준,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의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재원기관, 어머니의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는 부모들의 프로그램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아버지의 최종학력, 가구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아의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3.12%)을 가장 선호하고 미술, 음악 프로그램(13.90%)을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여아의 부모도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6.30%)을 가장 선호했지만, 미술, 음악 프로그램(22.60%)을 남아 부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녀 연령별 분석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0.80%), 미술, 음악 프로그램(19.80%), 교구(16.60%)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고, 만5세 아동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9.20%), 미술, 음악 프로그램(15.20%), IT, AI, 코딩 프로그램(14.60%)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의 아버지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1.76%), 미술, 음악 프로그램(19.05%), 외국어(12.58%)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고졸 이하 아버지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6.20%), 미술, 음악 프로그램(22.27%), 교구(14.85%)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

과,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9.37%), 미술, 음악 프로그램(26.19%), 교구(11.90%)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에서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5.36%), 미술, 음악 프로그램(20.62%), 교구(14.78%)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에서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2.02%), 미술, 음악 프로그램(14.34%), 외국어(14.1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4.07%), 미술, 음악 프로그램(16.72%), 교구(15.4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III-3-20〉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 2024년

구분	체육, 스포츠	미술, 음악	과학	IT, AI, 코딩 등	외국어	수학	한글, 논술	그림책	교구	기타	계(수)
전체	29.80	18.13	3.40	10.87	11.27	1.13	7.27	4.00	13.60	0.53	100.00(1,500)
자녀 성별											
남	33.12	13.90	3.12	12.21	11.82	0.78	7.01	3.90	13.64	0.52	100.00(770)
여	26.30	22.60	3.70	9.45	10.68	1.51	7.53	4.11	13.56	0.55	100.00(730)
자녀 연령											
만2세	30.80	19.80	4.80	6.80	10.00	0.60	6.60	3.20	16.60	0.80	100.00(500)
만3세	29.40	19.40	1.80	11.20	13.00	1.80	5.00	4.20	13.60	0.60	100.00(500)
만5세	29.20	15.20	3.60	14.60	10.80	1.00	10.20	4.60	10.60	0.20	100.00(500)
$\chi^2(df)$					26.866(9)**		49.481(1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9.39	17.55	2.37	13.02	11.05	1.78	8.09	4.54	12.03	0.20	100.00(507)
어린이집	30.00	18.57	3.85	9.12	10.88	0.66	7.36	3.96	14.84	0.77	100.00(910)
반일제학원	30.19	18.87	7.55	11.32	22.64	0.00	0.00	1.89	7.55	0.00	100.00(53)
기정양육	30.00	13.33	0.00	26.67	6.67	6.67	3.33	0.00	13.33	0.00	100.00(30)
$\chi^2(df)$					50.180(27)**(b)		31.553(27)				
0~마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58	22.78	1.27	15.19	10.76	0.63	7.59	3.16	10.76	1.27	100.00(158)
전문대졸	27.08	15.38	4.00	12.92	9.23	1.23	10.15	3.69	15.69	0.62	100.00(325)
4년제대졸	30.68	18.22	3.34	9.46	12.11	1.15	6.57	4.50	13.73	0.23	100.00(867)
대학원졸 이상	34.00	18.67	4.67	10.00	11.33	1.33	4.67	2.67	11.33	1.33	100.00(150)
$\chi^2(df)$											

구분	체육, 스포츠	미술, 음악	과학	IT, AI, 코딩 등	외국어	수학	한글, 한글 논술	그림책	교구	기타	계(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20	22.27	2.18	12.23	7.86	0.44	9.61	3.49	14.85	0.87	100.00(229)
전문대졸	26.99	12.11	4.15	12.11	11.07	0.69	8.30	6.23	17.99	0.35	100.00(289)
4년제대졸	31.76	19.05	2.99	9.84	12.58	1.12	6.85	3.61	11.71	0.50	100.00(803)
대학원졸 이상	28.66	17.83	6.37	10.83	11.46	3.18	4.46	3.18	14.01	0.00	100.00(157)
$\chi^2(df)$					45.693(27)*						
문별이 여부											
외별이	28.21	18.29	2.53	10.12	9.73	0.78	8.75	4.86	16.15	0.58	100.00(514)
맞별이	30.68	18.04	3.87	11.31	12.13	1.33	6.42	3.57	12.23	0.41	100.00(981)
미취업	20.00	20.00	0.00	0.00	0.00	0.00	20.00	0.00	20.00	20.00	100.00(5)
$\chi^2(df)$					52.126(18)*** (b)						
지역 규모											
대도시	28.30	17.53	3.30	11.98	13.72	0.87	7.12	3.47	13.19	0.52	100.00(576)
중소도시	32.31	18.13	3.51	9.50	9.65	1.61	7.16	4.68	12.87	0.58	100.00(684)
읍면	26.25	19.58	3.33	12.08	10.00	0.42	7.92	3.33	16.67	0.42	100.00(240)
$\chi^2(df)$					17.008(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37	26.19	0.79	7.94	7.94	1.59	5.56	6.35	11.90	2.38	100.00(126)
300 이상~500만원	25.36	20.62	3.83	12.04	9.31	0.73	8.94	4.01	14.78	0.36	100.00(548)
500 이상~700만원	32.02	14.34	3.34	11.98	14.15	1.18	6.48	4.72	11.59	0.20	100.00(509)
700만원 이상	34.07	16.72	3.79	8.20	11.36	1.58	6.31	1.89	15.46	0.63	100.00(317)
$\chi^2(df)$					54.918(27)**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번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7대번호가 5보다 적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시사점)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대상의 65.33%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다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다는 경우 30.10%였다.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로 평일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다. 배경에 따라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 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 도시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사교육 유형 별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다.

사교육 시작 연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장 빨랐다. 영유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은 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의 경우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19만 8천원이고,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 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이었고, 표준편차가 921.25로 매우 컸다.

나.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가짓수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참여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사교육 시작 연령 또한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일제 이상 학원 이후의 사교육 비용과 반일제학원 비용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 영유아 사교육 인식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사교육에 대해 부모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2024년 조사 응답자의 79%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다.

사교육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해주길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 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을 더 선호했으며,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를 가장 선호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가장 선호했는데,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사교육 축소,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보다 질이 낮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치원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동등하게 중시했다.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학 졸업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고졸 이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시했고, 읍면 지역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시하였다.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3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시하였다.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

- 0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 0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 0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 0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 05 소결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현재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 영향,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 영향,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행동을 평가한 결과를 성별, 연령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사교육 경험 변수(사교육 유무 및 유형,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교육 여부 및 학습사교육 개수에 따른 행동 특성에서는 총체적 어려움 전체 평균, 그리고 외현화 난점, 친사회적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 모두를 받은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외현화 난점 점수가 낮았고, 친사회적 행동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행동 특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보였는데, 2개 이상의 학습 사교육을 받는 아동이 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1개의 학습 사교육 받는 아동에 비해 외현화 난점의 점수가 낮았고,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과 예체능을 모두 포함하는 다수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은 발달이 빠른 경향이 있으며, 최근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에서도 발달 수준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는 이미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이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교육의 선별적 접근이나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1-1〉 자녀 행동 특성(1) (영역별 총점):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수)	총체적 어려움						친사회적 행동	
		평균	표준 편차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00)	1.44	0.22	1.37	0.26	1.52	0.27	2.32	0.42
자녀 성별									
남	(770)	1.46	0.23	1.39	0.27	1.54	0.27	2.28	0.41
여	(730)	1.42	0.22	1.35	0.26	1.49	0.27	2.36	0.41
<i>t</i>				3.8***		2.6**		3.7***	-3.9***
자녀 연령									
만2세	(500)	1.47 ^a	0.21	1.40 ^a	0.25	1.54 ^a	0.26	2.22 ^c	0.42
만3세	(500)	1.47 ^a	0.22	1.39 ^a	0.27	1.55 ^a	0.26	2.29 ^b	0.41
만5세	(500)	1.39 ^b	0.23	1.32 ^b	0.26	1.46 ^b	0.29	2.45 ^a	0.39
<i>F</i>				21.9***		13.3***		17.5***	44.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507)	1.43 ^a	0.22	1.36	0.26	1.50	0.27	2.37 ^a	0.40
어린이집	(910)	1.46 ^a	0.22	1.38	0.26	1.53 ^a	0.27	2.29 ^b	0.42
반일제학원	(53)	1.38 ^a	0.21	1.32	0.27	1.44	0.27	2.44	0.48
가정양육	(30)	1.43 ^a	0.24	1.47	0.25	1.39 ^b	0.26	2.33	0.39
<i>F</i>				2.9*		2.5		5.8**	5.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8)	1.47	0.24	1.37	0.24	1.57 ^a	0.31	2.35	0.39
전문대졸	(325)	1.46	0.23	1.37	0.26	1.54 ^a	0.28	2.28	0.44
4년제대졸	(867)	1.44	0.23	1.37	0.27	1.50 ^b	0.27	2.33	0.42
대학원졸 이상	(150)	1.42	0.19	1.36	0.25	1.47 ^b	0.24	2.31	0.38
<i>F</i>				2.5(a)		0.1		5.0**(w)	1.5(a)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9)	1.45	0.22	1.36	0.25	1.54	0.27	2.32	0.39
전문대졸	(289)	1.46	0.23	1.36	0.25	1.57 ^a	0.29	2.30	0.43
4년제대졸	(803)	1.43	0.23	1.37	0.27	1.49 ^b	0.27	2.32	0.42
대학원졸 이상	(157)	1.45	0.22	1.40	0.28	1.51	0.26	2.35	0.42
<i>F</i>				1.5		0.9		5.9**	0.5
맞벌이 여부									
외벌이	(514)	1.44	0.21	1.36	0.24	1.51	0.26	2.32	0.43
맞벌이	(981)	1.45	0.23	1.38	0.27	1.52	0.28	2.32	0.41
미취업	(5)	1.34	0.19	1.22	0.18	1.46	0.38	2.44	0.36
<i>F</i>				1.1		1.2		0.6(a)	0.2
지역 규모									
대도시	(576)	1.44	0.23	1.36	0.26	1.51	0.28	2.35	0.40
중소도시	(684)	1.45	0.22	1.39	0.27	1.52	0.27	2.29	0.43
읍면	(240)	1.43	0.22	1.35	0.25	1.51	0.28	2.33	0.41
<i>F</i>				1.4		2.7		0.1	2.9

구분	(수)	총체적 어려움						친사회적 행동	
		평균	표준 편차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6)	1.46	0.22	1.41	0.25	1.52	0.28	2.32	0.41
300 이상~500만원	(548)	1.46	0.22	1.38	0.25	1.53	0.27	2.28	0.41
500 이상~700만원	(509)	1.44	0.23	1.35	0.27	1.52	0.27	2.34	0.43
700만원 이상	(317)	1.42	0.22	1.36	0.27	1.49	0.27	2.34	0.39
F		1.7		2.0		1.8		2.3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316)	1.46 ^a	0.22	1.38	0.26	1.54 ^a	0.28	2.31	0.40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69)	1.47 ^a	0.24	1.39	0.29	1.54 ^a	0.28	2.33	0.43
모두 받음	(295)	1.40 ^c	0.21	1.34	0.25	1.46 ^b	0.26	2.37 ^a	0.41
사교육 받지 않음	(520)	1.44	0.22	1.37	0.25	1.52 ^a	0.27	2.29 ^b	0.42
F		5.7**		2.5		6.1***		3.0*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889)	1.45 ^a	0.23	1.38	0.27	1.53 ^a	0.27	2.31 ^b	0.42
1개	(313)	1.45 ^a	0.23	1.38	0.26	1.53 ^a	0.29	2.29 ^b	0.41
2개 이상	(298)	1.41 ^b	0.20	1.34	0.24	1.47 ^b	0.26	2.40 ^a	0.39
F		5.1**		2.3		5.2**		6.5**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3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아니다. 2. 다소 그렇다. 3. 분명히 그렇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행동 특성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서증상, 또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등 네 가지 주요 행동 특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교육 여부에 따른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행동문제와 과잉행동/부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행동문제 항목에서는 F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Welch ANOVA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행동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과잉행동/부주의 항목에서는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그룹의 아동이 예체능이나 기타 사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해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과잉행동이나 부주의 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사교육 여부와 그 유형에 따라 일부 행동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행동문제와 과잉행동/부주의 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 아동의 특성에 따른 편향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 IV-1-2〉 자녀 행동 특성(1) (총체적 어려움 세부영역별 점수): 2024년

구분	(수)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단위: (명), 점	
		정서증상		또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00)	1.32	0.32	1.42	0.32	1.43	0.28	1.60	0.39		
자녀 성별											
남	(770)	1.33	0.32	1.45	0.33	1.43	0.28	1.65	0.40		
여	(730)	1.32	0.32	1.38	0.31	1.43	0.28	1.55	0.37		
<i>t</i>		0.4		3.9***		0.3		5.0***			
자녀 연령											
만2세	(500)	1.31	0.29	1.49 ^a	0.32	1.46 ^a	0.27	1.63 ^d	0.37		
만3세	(500)	1.34	0.32	1.44 ^a	0.33	1.48 ^a	0.29	1.62	0.39		
만5세	(500)	1.32	0.34	1.32 ^b	0.29	1.35 ^b	0.26	1.56 ^c	0.40		
<i>F</i>		0.9		38.8***(<i>w</i>)		31.9***(<i>w</i>)		4.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507)	1.34	0.33	1.38 ^c	0.31	1.41	0.28	1.59	0.39		
어린이집	(910)	1.32	0.31	1.43 ^b	0.31	1.44	0.28	1.63 ^a	0.39		
반일제학원	(53)	1.25	0.27	1.39 ^d	0.37	1.40	0.27	1.48	0.34		
가정양육	(30)	1.27	0.34	1.67 ^a	0.29	1.35	0.30	1.42 ^b	0.30		
<i>F</i>		1.9		10.1***		2.3		5.7**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8)	1.34	0.31	1.41	0.28	1.46	0.31	1.69 ^a	0.44		
전문대졸	(325)	1.34	0.31	1.41	0.32	1.44	0.28	1.64 ^a	0.40		
4년제대졸	(867)	1.32	0.33	1.42	0.32	1.42	0.28	1.58 ^a	0.37		
대학원졸 이상	(150)	1.31	0.29	1.41	0.32	1.39	0.23	1.56 ^a	0.37		
<i>F</i>		0.7		0.2		1.7(a)		5.1**(<i>w</i>)			

구분	(수)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정서증상		또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9)	1.33	0.32	1.39	0.30	1.44	0.26	1.64 ^a	0.39
전문대졸	(289)	1.32	0.30	1.39	0.31	1.45	0.28	1.69 ^a	0.42
4년제대졸	(803)	1.32	0.32	1.43	0.32	1.42	0.29	1.56 ^a	0.37
대학원졸 이상	(157)	1.35	0.35	1.45	0.34	1.41	0.28	1.60 ^a	0.39
F		0.6		1.8(a)		0.8		7.7***(w)	
맞벌이 여부									
외벌이	(514)	1.32	0.30	1.41	0.31	1.41	0.26	1.61	0.38
맞벌이	(981)	1.33	0.33	1.42	0.32	1.44	0.29	1.60	0.39
미취업	(5)	1.12	0.18	1.32	0.23	1.40	0.37	1.52	0.41
F		1.3		0.5		2.0(a)		0.1	
지역 규모									
대도시	(576)	1.31	0.32	1.42	0.32	1.43	0.29	1.60	0.38
중소도시	(684)	1.34	0.32	1.43	0.32	1.43	0.28	1.61	0.39
읍면	(240)	1.31	0.30	1.38	0.30	1.44	0.28	1.58	0.39
F		2.4		1.9		0.1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6)	1.37	0.33	1.44	0.29	1.48	0.31	1.56	0.38
300 이상~500만원	(548)	1.34	0.31	1.42	0.32	1.42	0.27	1.64 ^a	0.40
500 이상~700만원	(509)	1.31	0.32	1.40	0.32	1.43	0.28	1.61	0.38
700만원 이상	(317)	1.30	0.32	1.43	0.33	1.41	0.29	1.56 ^b	0.38
F		2.6		0.9		1.6		3.4*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316)	1.33	0.31	1.43 ^a	0.32	1.46 ^a	0.29	1.62	0.39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69)	1.35	0.35	1.43 ^a	0.34	1.44 ^a	0.29	1.64 ^a	0.38
모두 받음	(295)	1.32	0.31	1.36 ^a	0.31	1.37 ^c	0.24	1.54 ^b	0.40
사교육 받지 않음	(520)	1.30	0.31	1.43 ^a	0.30	1.44 ^a	0.28	1.61	0.38
F		2.0(a)		3.4*		7.3***(w)		3.5*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889)	1.32	0.33	1.43 ^a	0.32	1.44 ^a	0.29	1.62 ^a	0.38
1개	(313)	1.33	0.32	1.42	0.32	1.44 ^a	0.29	1.61	0.40
2개 이상	(298)	1.32	0.30	1.37 ^b	0.31	1.39 ^b	0.25	1.55 ^b	0.39
F		0.2		4.5*		4.6*(w)		3.4*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3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아니다. 2. 다소 그렇다. 3. 분명히 그렇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행동 특성 중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의 어려움 여부와 어려움 지속기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사교육 여부에 따른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부를 살펴보면,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24.37%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22%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26.5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63%는 상당히, 1.08%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체능/기타 및 학습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의 경우, 18.98%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71%는 상당히, 0.68%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의 경우, 23.08%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50%는 상당히, 0.19%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검정 결과, 사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여부가 아이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는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결과,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의 24.52%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14%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23.9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19%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19.4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68%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 사교육 개수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개수가 아이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는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교육 여부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어려움을 겪은 아동 중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가 20.24%로 나타났고, 1~5개월이 28.57%, 6~12개월이 21.43%, 그리고 1년 초과 지속된 경우가 29.76%로 나타났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37.96%로 가장 높았으며,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는 12.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지속된 경우가 3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22.73%, 1~5개월 지속된 경우는 27.27%, 1개월 미만은 13.64%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1년 초과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34.3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5개월 지속된 경우가 32.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는 16.4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사교육 여부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 1년 초과 지속된 비율이 35.95%로 가장 높았고, 1~5개월 지속된 경우가 32.64%,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16.53%, 1개월 미만은 14.88%로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을 1개 받은 아동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 1~5개월 지속된 비율이 34.12%로 가장 높았고, 1년 초과는 30.59%, 6~12개월은 20.00%, 1개월 미만은 15.29%로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을 2개 이상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지속된 비율이 35.38%로 가장 높았고,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24.62%, 1개월 미만과 1~5개월은 각각 20.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학습 사교육 개수가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IV-1-3〉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여부 및 지속기간): 2024년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단위: %, (명)
전체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예, 아니오	계(수)	1개월 미만	1~5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계(수)			
자녀 성별	23.40	2.27	0.47	73.87	100.00(1,500)	15.82	30.87	18.62	34.69	100.00(392)
남	25.84	2.99	0.78	70.39	100.00(770)	15.79	28.95	17.11	38.16	100.00(228)
여	20.82	1.51	0.14	77.53	100.00(730)	15.85	33.54	20.73	29.88	100.00(164)
자녀 연령	$\chi^2(df)$				3.210(3)					
만2세	25.00	2.40	0.60	72.00	100.00(500)	18.57	37.14	20.00	24.29	100.00(140)
만3세	24.20	2.80	0.80	72.20	100.00(500)	15.83	31.65	16.55	35.97	100.00(139)
만5세	21.00	1.60	0.00	77.40	100.00(500)	12.39	22.12	19.47	46.02	100.00(113)
	$\chi^2(df)$				15.245(6)*					
자녀 지원기관										
유치원	22.49	1.78	0.39	75.35	100.00(507)	16.80	24.00	19.20	40.00	100.00(125)
어린이집	24.18	2.53	0.55	72.75	100.00(910)	14.52	35.89	17.74	31.85	100.00(248)
번일제학원	24.53	1.89	0.00	73.58	100.00(53)	28.57	14.29	21.43	35.71	100.00(14)
가정양육	13.33	3.33	0.00	83.33	100.00(30)	20.00	0.00	40.00	40.00	100.00(5)
	$\chi^2(df)$				11.609(9)(b)					
0~마니 죄송학력										
고졸 이하	29.75	3.80	1.27	65.19	100.00(158)	10.91	20.00	21.82	47.27	100.00(55)
전문대졸	27.38	2.46	0.31	69.85	100.00(325)	18.37	38.78	13.27	29.59	100.00(98)
4년제대졸	20.99	1.96	0.46	76.59	100.00(867)	15.76	30.05	18.72	35.47	100.00(203)
대학원졸 이상	22.00	2.00	0.00	76.00	100.00(150)	16.67	30.56	27.78	25.00	100.00(36)
	$\chi^2(df)$				13.080(9)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아니오	계(수)	1개월 미만	1~3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계(수)
0번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89	2.62	0.87	71.62	100.00(229)	18.46	18.46	20.00
전문대졸	29.76	3.11	0.35	66.78	100.00(289)	13.54	37.50	14.58
4년제대졸	21.17	1.87	0.50	76.46	100.00(803)	14.81	32.28	19.05
대학원졸 이상	21.02	1.91	0.00	77.07	100.00(157)	22.22	30.56	22.22
$\chi^2(df)$								9.859(9)
별이 여부								
외별이	22.96	2.33	0.97	73.74	100.00(514)	15.56	27.41	22.22
맞벌이	23.55	2.24	0.20	74.01	100.00(981)	16.08	32.94	16.08
미취업	40.00	0.00	0.00	60.00	100.00(5)	0.00	0.00	100.00(2)
$\chi^2(df)$								11.465(6)(b)
지역 규모								
대도시	22.92	2.08	0.17	74.83	100.00(576)	11.03	35.17	20.00
중소도시	24.71	2.34	0.73	72.22	100.00(684)	17.37	29.47	16.84
읍면	20.83	2.50	0.42	76.25	100.00(240)	22.81	24.56	21.05
$\chi^2(df)$								6.861(6)
구소득								
300만원 미만	20.63	4.76	0.79	73.81	100.00(126)	21.21	33.33	9.09
300 이상~500만원	25.55	3.10	0.91	70.44	100.00(548)	15.43	31.48	18.52
500 이상~700만원	23.77	1.77	0.20	74.26	100.00(509)	12.21	34.35	17.56
700만원 이상	20.19	0.63	0.00	79.18	100.00(317)	21.21	21.21	25.76
$\chi^2(df)$								9.238(9)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아니오	계(수)	1개월 미만	1~57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계(수)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24.37	2.22	0.00	73.42	21.07(316)	20.24	28.57	21.43
예체능/7타 사교육 받음	26.56	1.63	1.08	70.73	24.60(369)	12.96	33.33	15.74
모두 받음	18.98	2.71	0.68	77.63	19.67(295)	13.64	27.27	22.73
사교육 받지 않음	23.08	2.50	0.19	74.23	34.67(520)	16.42	32.09	17.16
$\chi^2(df)$								5.087(9)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24.52	2.14	0.56	72.78	59.27(889)	14.88	32.64	16.53
1개	23.96	3.19	0.00	72.84	20.87(313)	15.29	34.12	20.00
2개 이상	19.46	1.68	0.67	78.19	19.87(298)	20.00	20.00	24.62
$\chi^2(df)$								6.337(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7[대빈도가 5보다 적은 설문 1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